

[안산시민사회연대 시리즈토크]

코로나19시대, 삶의 기록

2020

주최 안산시민사회연대

후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Gyeonggi center for Public Interest Support

본 사업은 ‘함께하는 공익활동, 지속가능한 경기’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작가의 말

3

[토크1] 코로나 시대의 환경과 돌봄

11

[토크2] 우리 안에 숨어있는 차별 드러내기

49

[토크3]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들

88

[토크0] 코로나 시대 삶과 노동

123

[부록] 안산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설문조사 결과

146

[작가의 말]

예견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하나의 사건, 코로나19

- 코로나 시대의 삶의 기록, 코로나19 이야기 시리즈 3부작

1. “에일리언 상황”

하루도 코로나19를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다.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다.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마음도. 아침에 일어나서 맨 먼저 하는 일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와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 추이에 따라 우리의 하루 생활방식도 달라진다. 어쩌면 코로나19는 인류의 ‘내재적인 단절’을 가져올 하나의 가장 큰 사건인지도 모르겠다.

이 변화를 <노동의 종말>의 제레미 리프킨은 “새로운 대지 위에 올라섰다.”고 했고, <존재의 지도>의 레비 브라이언트는 ‘에일리언 상황’이라 선언했다. 이제는 인간 중심의 세계가 뒤흔들리고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중심이 되는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외계인이란 지구 밖의 존재들이 아닌 ‘너구리, 모기, 나무, 바위, 컴퓨터 게임, 기관 등과 같은’ 인간 이외의 존재를 가리킨다. 인간을 하잘 것 없는 국지적인 존재로 축소화 시키는 선언인 것이다. 이 사건은 세계를 새롭게 재배치하는 과정이

며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과정이다.

이런 복잡하게 뒤엉킨 혼돈의 상황에서 ‘안산시민 사회연대’는 3회에 걸친 코로나19 시리즈 토크와 1번의 시범 토크를 열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서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우리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어떤 것들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가져온 것은 무엇이고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이런 물음들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생존 조건이다.

사실 우리는 서로를 두려워하고 의심하면서 만났다. 내가 피해자가 될 것이 두려웠고 내가 가해자가 될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더 깊어지는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들이 내면의 두려움과 많은 의문들을 해소해주고 새로운 생각들로 채워주었다. 서로를 확인하는 이 과정이 참으로 즐거웠다. 힘겨운 상황을 견디고 있는 시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만남이었다. 혼란 속에서도 뭔가 길을 찾아내려는 수많은 고민들과 잔잔한 이야기들이 맑은 시냇물처럼 혈관 속을 흐르는 느낌이었고 아무런 흔적도 없는 막막한 사막에서 작은 첫발자국을 내는 것 같았다. 확진자가 많아질 때면 작은 카페를 빌려 이야기 참가자들과 시민 몇 명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코로나로 개최한 이야기 모임인데 코로나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첫 번째 이야기 주제는 코로나19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를 고

민한 ‘환경과 돌봄’에 관한 것이었다. 코로나19가 서식지가 없어진 동물의 몸에서 인간에게 오면서 어떻게 인간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았는지 이 과정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자연을 공존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시선으로만 바라본 지금까지의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기도 했다. 이야기참석자 배현정님의 말처럼 환경문제가 코로나19로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음을 느낀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처럼 생명을 기르는 돌봄노동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들의 삶이, 특히 코로나로 더 많아진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깊게 마음에 다가왔다. 최근에는 돌봄노동이 확장되어 <페미니즘 투쟁>을 지은 마리 아로사 달라 코스타의 표현처럼 ‘대지의 돌봄’, 즉 자연을 돌봄의 대상으로 넓히는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환경과 돌봄’은 매우 적절한 주제였다. 어쩌면 코로나 19같은 바이러스도 인간처럼 존재하는 하나의 생명이고 돌봄의 대상인지도 모르겠다. 영화 모노노케 히메의 ‘분노의 벌레들’처럼 자신이 태어난 숲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들도 인간과 새로운 관계 맺기를 원할 것이다.

두 번째 토크 주제는 ‘차별과 혐오’에 관한 이야기이다. 프랭크 노든은 ‘전염병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비춰주는 거울이다’고 했다. 성숙하지 않은 사회일수록 위기의 순간 타인을 향한 차별과 혐오가 시작된다. 우리 안에 깊게 존재하는 차별과 혐오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죽음을 불러일으킨다. 차별은 작고 내밀하고 일상적이어서 코로나 이후 더 뚜렷하고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사회적인 깊은 성찰이 필요한 지점이다. 다

양한 영역 중에서도 여성과 비정규직 사람들, 이주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세 번째 이야기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들’이라는 주제로 안산시민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 시민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코로나 방역이 모든 가치의 중심으로 배치되면서 기존에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가치들이 현실 속에서 포기하게 되는 딜레마적인 상황에 놓인 시민활동가들의 이야기는 우리도 일상 속에서 느끼는 문제여서 더 깊게 공감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등장한 비대면의 활동방식과 ‘광장’으로 표현되는 대면의 활동방식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이후의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나눴다.

2. 마음에 남은 말들

토크시리즈를 진행하면서 마음에 남은 몇 가지 말들이 있다. 우리가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지만 현실은 수많은 사회적인 역작용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있다. 특히 이 코로나19 사건은 현상으로는 질병의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연과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해서 사회적인 동시에 환경적인 하나의 복합의 위기를 만든다. 이

한가운데서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은 매순간마다 내적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거기서 배태한 표현들이 이야기 시리즈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다.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다.

1회 시민으로 참가한 김해정님은 코로나 상황에서 철학자가 되기도 했다. “코로나가 나에게 오면서 안 해 본 질문을 하게 돼요. 세상에, 내 삶에 대해 철학적인 사람이 아닌데 철학적으로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자꾸 묻게 되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1회 이야기참석자로 참여한 진지혜님은 그동안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를 아끼려고 전자제품을 자제해 왔는데 코로나 이후 빨래량이 많이 늘어나 할 수 없이 건조기를 샀다고 했다. 같은 회에 함께 참여했던 정한철님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전기자동차 생산을 그린 뉴딜로 생각하는 건 순진한 생각이며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플라스틱 제품과 부품이 줄어드는데서 오는 노동력의 감소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사람들이 갯벌을 지켜주세요, 하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야산은 헐어서라도 아파트를 짓고 싶어하는 그들의 ‘이중성’을 말하기도 했다.

2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 속파오시다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대화도 못해 로봇처럼 되고 복도에서 친구 이름 부르면 담임선생님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감시자가 된다고 말해 지금 교육현장의 아이들이 처한 어려운 모습을 표현해 주기도 했다. 2회 이슬기님은 코로나19이후 불안정한 일자

리로 직장 내 성희롱이 늘었으며 같은회 김경미님은 병원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방호복 없이 환자를 이송하도록 해서 결국 그 분이 코로나에 걸려 세달 입원했다가 퇴원했으나 해고되는 현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말했다. “바이러스는 공평해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누구나 걸릴 수 있죠” 코로나로 오는 보호와 혜택조차 불평등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었다.

3회에 참여한 시민단체활동가 김영경님은 할머니가 식당에 갔는데 무조건 QR코드(2차원바코드)로만 방문기록을 해야 한다고 해서 핸드폰 없는 할머니는 밥을 못 먹고 돌아왔다고 했다. 식당에 종업원 없이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도 마찬가지였고 그러한 상황이 무척 속상했다고 했다. 이는 코로나 시국에 디지털 정보 격차가 더 커졌음을 느끼게 해 주는 사례였다.

이 외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설명해 주는 수많은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토크시리즈 곳곳마다 숨어있다.

3. 이끼와 바이러스와 인간의 새로운 관계 맺기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온 존재들이어서 그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 쉽게 두려움의 대상이나 박멸, 퇴치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으려 애를 썼다. 그래서 두 권의 책을 샀다. ‘이끼’와 ‘미생물’에 관한 것인데 그동안

살면서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던 두 존재들이었다. 읽으면서 알았다. 그들을 이해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이끼를 가장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그를 귀로 듣는 것이다. 뿌리가 없고 몸과 머리만 있는 이끼는 잎사귀 안에 수많은 물주머니들을 품고 있는데 그 물주머니와 물주머니 사이를 흐르는 물길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내었다. 그것은 이끼가 다른 존재에게 전해주는 자신만의 언어였다.

미생물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지구에 존재한 첫 생명체이고 인간보다 더 오래된 지구의 주인이다. 그 중 바이러스는 유전은 하나 세포가 없는 존재이다. 이들은 스스로 생명체를 유지할 수 없어 남의 세포에 들어가 가장 작은 수준의 자기복제를 하는 존재들이다. 주로 야생동물 몸에 삶의 안식처를 마련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어 인간하고는 어떠한 적대적 관계나 미움도 생기지 않을 존재였던 바이러스가 코로나19 형태로 우리 곁으로 왔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이다.

“

... 개똥지빠귀, 나무, 이끼, 인간과 같은 모든 생명체는 같은 언어를 썼다. 그 언어는 오래전에 잊혀졌고 이제 다른 존재의 이야기를 알려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관찰해야 한다

- 이끼와 함께 7p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주는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언어’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왜 멀리까지 와서 전 세계에 살고 있던 인간의 몸을 숙주삼아 살고 있는지 천천히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인간은 이제 스스로 낮춰 그들의 언어로 바이러스와 새로운 관계 맺기를 해야 한다.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시리즈 토크를 주최한 안산시민사회연대와 기획단으로 애써주신 정은진님, 김송미님, 구인규님, 황정욱님, 배현정님은 안산시민사회에 매우 의미 있는 길을 내어 주었다. 그 길을 통해 뭔가를 해 볼 수 있는 작은 용기를 얻었고 마음의 치유도 받았다. 특히 많은 양의 녹취를 풀어주신 황정욱님께 감사를 드린다.

- 김순천 작가가 대표하여 씀

[시리즈 토크]

코로나19 시대, 삶의 기록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안산 시민사회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모아내고, 이후 변화의 근거가 되거나 더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기록물로 남기고자 합니다.

토크1

코로나 시대의 환경과 돌봄

"코로나19 이후 그려보는
안전한 미래"

2020. 7. 21(화) 오후 2시
우리동네연구소 '퍼즐' 협동조합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26, 3층)

진행/정리

김순천
(르포작가)

이야기손님

배현정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워킹맘)

정한철
(화성환경운동연합 교육국장)

진지혜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간사, 워킹맘)

참가문의

031-413-5230

토크2

우리 안의 숨어있는 차별 드러내기

"위기의 순간, 타인을 향한 혐오와 차별"

2020. 8. 18(화) 오후 2시

토크3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들

"재난 속 가치 확산을 위한 새로운 활동 방식 모색"

2020. 9. 15(화) 오후 2시

-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체크, 손소독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 * 참석하실 분들은
마스크를 지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최 안산시민사회연대

지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본 사업은 '함께하는 공익활동, 지속가능한 경기'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시리즈 토크1]

코로나19 시대의 환경과 돌봄

일시 : 2020년 7월 21일(화) 14:00

장소 : 우리동네 연구소 협동조합 '퍼즐'

사회 : 김순천 작가

이야기참가자 : 배현정(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자 워킹맘)

정한철(화성환경운동연합 교육부장)

진지혜(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간사)

사회자 >>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하루 일과를 중심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진지혜 >>

일동에서 8살,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고요. 말씀대로 제 소개를 하루일과로 해보면, 6시 반쯤 일어나서 뒹굴뒹굴하며 일어날까 말까 망설이다 하루 일과 시작해요. 남편 출근 후 1시간 정도 뉴스도 검색하

고 어제 올라온 폐북도 보고 시간 보내다가 7시 반쯤 되면 출근할 준비를 시작해요.

8시쯤 되면 작은 아이가 일어나요. 안아 달라 하면 안아주고 TV 틀어달라고 하면 EBS 덩동댕 유치원 틀어주고 그 잠깐 보는 사이에 도시락을 싸요. 물 챙기고(웃음) 혹시 챙겨야 되는 바지나, 속옷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지 (어제) 선생님이 써준 돌봄장을 보면서 작은 아이 것을 다 챙긴 후에 큰아이가 8시 15분 정도에 일어나면 입을 옷이랑 숙제나 간단한 먹을 거리 등을 챙기고 옷 입히고 8시 반경 집을 나서요.

큰아이를 먼저 오전 돌봄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보내고 차를 운전해서 작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8시 40분 정도에 어린이집에서 출발해요. 거기서 출근하면 9시에 도착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거든요. 여러 가지 일 처리하다 보면 점심시간 되고 오후시간 되고 그렇게 하루가 가요. 퇴근을 5시 반 경하고 거의 날아서 어린이집 도착하면 6시거든요. 작은아이 먼저 픽업해서 집에 데려다놓고 TV 켜주면 큰아이가 혼자서 집으로 와요.

그때부터 옷도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아이에게 ‘손씻어라’ 해놓고 밥을 가장 먼저 앉히거든요. 밥이 빨리 돼야 저녁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빨래를 돌려요. 밥이 끓는 사이에 국 끓이고 생선 굽고 계란 후라이 등 반찬하고 중간중간 아이들이 배고프다 하면 우유도 먹이고...

그렇게 준비해서 7시 반쯤 저녁을 먹어요. 먹고 나면 보통 남편이 설거지를 해요. 저는 그 사이 아이들 학교 숙제 체크하고, 진도 어디까지 나갔나 살펴보고 숙제 좀 하게 하면 그럼 8시가 되거든요. 아이들이 '간식 먹고 싶어, 바람 쐬고 싶어' 하면 8시 넘어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슈퍼를 간다거나 내일 준비물을 사러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동네 한바퀴를 돌고 들어가서 씻고 잠자리에 누우면 9시 반에서 10시경이 돼요. 그러면 저의 하루가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웃음).

배현정 >>



배현정

은 것들을 외주화 혹은 사다 먹인다든가 하는 형태로 집안일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등하원이예요. 그걸 혼자 다 감당을 해야 하고.

주말 부부고요. 앞의 진지혜님과 큰 줄기는 비슷해요. 일어나서 아이 케어하는 일을 거의 혼자 해요. 특히 평일에는 혼자 다 해야하기 때문에 저는 많은 것들을 생략합니다. 아침을 기본적으로 생략하고 저녁도 간단히 만들어서 먹습니다. 주 1회는 청소도우미도 부르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외주화

특히 저희 활동가들은 일 특성상 늦게 마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게 부탁해야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사실 스트레스예요. 시부모님이나 주변 언니들한테 부탁하는데 주 2~3회는 아이의 하원을 누군가가 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규칙적 틀은 있지만 저의 생활은 매우 불규칙하거든요. 내 시간은 없거든요. 피곤하면 아이와 함께 일찍 자버리거나 가끔 아이 재우고 나서 내 시간을 가지면 늦게 자서 피곤하고. 이런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실제로는 머리의 중심은 일이 많고 그러나 몸의 중심은 돌봄에 가있어요. 아이의 스케줄을 제가 따라야 하니까.

일로 얘기 드리자면 현재 일자리가 첫 사회생활이에요. 이 속에서 결혼과 출산도 했어요. 여러 일도 맡고 있고, 제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발 빠기 어려운 11년차 활동가고요. 매일 매번 큰 환경 이슈가 터지는 일이 많고 그런 위기감 속에 운동하고 있고요. 시간이 갈수록 위기감이 더 커진 상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내 아이가 미래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은 그런 활동가입니다.

정한철 >>

저는 화성에서 온 남자고요(웃음). 워킹대디 정한철입니다. 결혼 18년차

이고 고2 아들과 중2 딸이 있고요. 연애 기간까지 하면 23년 함께 해온 내 인생 과반을 함께 살아온 아내, 이렇게 네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프로필에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남자, 자다가도 아내 말을 잘 들으면 떡이 나온다는 남자’ 라고 써 놔어요. 그 말은 믿지만 실천은 잘 못하죠(웃음).

신혼 초에 설거지 해줄게, 했다가 쫓겨 날 뻔했어요. 해주는데 뭐야, 그냥 하는 거지. 그 이후로 서열 1위인 아내 손 안에서 질서 있게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정한철

화성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고요. 사무국장 하다가 지금은 교육하는 일을 맡고 있어요. 기후 위기, 탈핵 등 수 많은 분야들 가운데 주로 생태 보전 관련 활동을 해왔어요. 화성에도 경기만의 제일 넓은 바닷가 갯벌, 습지들을 보존하는 일을 해왔고 도요물 떼새의 준 전문가가 되었어요. 화성습지 지키는 일 관련해서 텔레비전에 나오기도 했고요. 수원 공군전투기지 화성 이전 막는 투쟁의 중심에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다 커서 돌봄이라는 영역보다는 함께 성장해나가고 있고 같이 배우고 같이 크고 아들과는 너무 막역한 사이여서 저보다 덩치도 크고 같이 진로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집에서는 밥하고 빨래하는 것을 잘하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사회자 >>

시간의 제약이 있다보니 낮에 하는 일들에 대한 말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배현정 국장님과 진지혜 간사님은 낮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현정 >>

그때그때 이슈에 대한 대응도 하고 주요한 활동들이 달라서 어떤 날은 사무실에 아예 못 들어오는 날도 있어요. 외부 일이 많고 회의를 다녀야 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경우도 민원인이 와서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민원 처리 상담도 하고 비정기적인 일이 많아요. 저희 일이라는 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 다 해결되지도 않고 다양하고 비정기적인 일이 많아 애매한 것 같아요.

진지혜 >>

저희도 회의나 맡은 사업들 실무 진행하고 있구요. 요즘은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했었고, 주요 의제 관련 SDGs 아카데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코로나 이후로 삶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떤 변화들을 겪고 있는지 말씀 나눠 주셨으면 합니다.

정한철 >>

다 사정이 비슷하겠지만 저희도 작년 말과 올 초에 기획했던 사업들이 전면 취소되고 보류된 상황이 이어졌죠. 2월 말 팬데믹(감염병 세계 대유행) 선언 이후 '4월이면 괜찮아 질거야. 5월이면, 6월이면 곧 나아질거야.' 하다 보니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다보니 모임이 안 되고 대면하지 않은 것이 일상이고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뉴노멀이라고 하는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수많은 모임이 사라졌는데 왠지 자연스럽고 편한 마음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사람이 그림고, 아쉽기도 하고, 최소한의 가족모임도 불안하고, 상대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찌지, 하고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특히 저희 활동가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역할이다보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저희를 꺼려하고 조심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어요. 그 분들이 동네에서는 조심하다가 사무실에 와서 저희를 만나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저희도 여전히 서울 가고 대전 가고 공무원을 만나고 하니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음에도 두려움이 공존되는 상황을 겪죠.

그래도 조직을 꾸려나가야 되니 최소한의 모임들을 어떻게 유지하는 게 지혜로울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예산을 어쨌든 잘 써야되다보니 사업 변경 등 스트레스 속에서 지 내기도 하고요.

집을 보면 다 큰 녀석들이 강제로 4개월여 방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빠 밥줘.’ 하고 고2한테 전화가 와요. 엄마한테는 전화를 안해요. 보육교사하다보니. 애들도 챙겨야 되고, 저도 돌봄의 스트레스도 있지만 한편 애들을 언제나 볼 수 있어서 좋죠. 마지막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혼자선 풀지 못하는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배현정 >>

달라진 듯 달라지지 않았어요, 돌봄의 영역은요. 시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기 때문에 긴급보육을 3월부터 4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은 있지만 긴급이기에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는 있지 않아 예전보다 아이가 어린이집 가길 싫어해서 빨리 찾아오려 노력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그나마 공적 영역으로 도움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사적 영역이기도 해요. 다른 시간들은 가정에서는 다 사적으로 해결해야 되니까요.

일 관련해서는 몸의 반경은 줄었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하고 바빠졌어요. 대면해서 사람 만나고 캠페인도 하고 해야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동을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은데 그 역시도 논의를 해야 얘기가 나올 텐데 그것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어서 더 어려워요.

또 가족돌봄휴가를 썼는데 사실 휴가라기보다 재정적 도움을 받고자 썼어요. 저희는 단체 특성상 연말연초에 회원이 줄고 봄 되면서 새로운 활동하고 사람 만나며 회원확대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사업이 줄어서 그게 잘 안됐어요.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가족돌봄휴가비 50만원을 지원받아 단체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또 마음이 바빠지는 것은 코로나와 함께 환경의 위기가 더 부각되면서 뭔가 같이 하는 것이 조금 더 보편화되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먹고살만하니 환경운동 한다는 것에서 이제는 점차 생존에 가깝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다고 보니까. 그러다보니 이제는 환경이 너무나 다 끼여야 되는, 또는 주도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해야 할 일이 많아지기는 하지만 뭘 해야 할지 중심이 잡히지 않는 어려움,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좀 더 뾰족해진 것이 있어요. 그렇게 말은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이 위기다.’ 하면서 나아지지 않는 모습에 대한 불편함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일회용품들이 많이 풀리고 카페에서 플라스틱 쓰고, 특히 제가 가장 뾰족해졌을 때가 총선 때 1회용 비닐장갑을 쓸 때였어요. 전염을 막는 것은 좋지만 꼭 그렇게 해야 했을까, 좀 더 다른 대안들을 생각해볼 수는 없었을까. 코로나로 모든 게 다 덮어지는 모습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진지혜 >>



진지혜

일 매일 빨아야 될 것 같고 뭔가 안 빨면 찝찝하고 그런 것에 시달리면서 저희 집에 가장 큰 변화로 건조기를 샀어요. 제가 원래 그래도 나름대로 환경을 많이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탄소배출 신경 쓰거나 친환경 세제만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사를 꾸려왔는데 코로나가 가장 최상의 가치로 올라가면서 환경이고 뭐고 다 필요없고 빨래를 하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남편에게 ‘내가 죽겠으니까 사겠다.’ 해서 들여놨어요.

그리고 음식점 가서 먹는 것이 조심스러워지니 계속 집에서 해먹게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포장해서 집에서 먹게 되거나. 예전에는 일주일에 네 번 정도 했는데 지금은 매일 음식을 해야 되고 집안일을 많이 하

코로나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주로 돌봄 관련된 건데, 집안에서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일이 원래도 많았지만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예를 들자면 빨래도 이틀에 한번 했는데 섬유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 시간 살 수 있다는 기사를 본 이후로 일회용품 벗어 던지는 것처럼 웬지 매

다 보니 두 달 만인가 엘보우(팔꿈치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가 와서 칼질이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심해서 몇 달간 힘들었던 일도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없잖아요. 학교를 일주일 한 번 가고 하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숙제를 내주고 검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그것과 관련된 추가된 노동이 있는 거예요. 저녁에 와서 매일 애를 잡죠. ‘너 여기 앉아봐, 숙제 언제 할거야, 선생님께 혼나면 어떡할거야.’ 그러면서 숙제로 애를 잡게 되는 거예요. 애들은 울면서 숙제하고... 이것이 맨날 우리의 일상이 됐고 그러면서 저에게는 또 어떤 부담이 있냐면 아이들이 잘 안 해 가면 비난의 화살이 엄마에게 오는 거예요. ‘어머니, 아이가 몇 쪽까지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이런 문자를 받으면 그날 밤에 너무 괴로워하면서 ‘너 빨리 여기 앉아봐.’ 아이 앉혀놓고 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회사에서 워크숍도 종종 가고, 구성원들과 즐거운 시간도 많이 갖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워크숍을 못 가게 되니까, 비대면 사업들도 어려워지고 하다보니까 ‘야, 정말 워크숍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하루 중 아이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고 묻는 거예요. 사실상 24시간 아이 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출근해서 일하는 중에도 아이가 전화를 해서 ‘엄마 방과 후 수업에서 나 밥 먹기 싫어.’ 이런 전화를 계속 받고 선생님이 ‘어머니, 아이

가 이런 것이 안 돼 있어요.’ 이런 노동을 24시간 하다보니까 요새는 워 크숍이라도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토요일 날 업무가 있으면 너무 좋기도 하고요(웃음). 그 정도의 변화가 코로나 덕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배현정 >>

사적 돌봄 영역이 커졌는데 이걸 다 여성이 메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남편이 같이 못하니까 제가 집안일을 다 책임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미 포화상태인데 지혜님이 24시간 한다는데 저도 24시간 하거든요. 어제 밤에도 아이가 오줌 싸서 새벽에 빨래를 돌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주일에 몇 번은 반복돼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다 채우는 게 여성의 영역이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사회문제 속에 내가 들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정한철 >>

맞아요,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청중 중에 남성들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웃음). 저는 최근 몇 달 동안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쇼핑이 늘었어요. 온라인 쇼핑, 택배 주문, 쿠팡,마켓컬리 주문량 늘어난 것 다들 공감하실거예요. 그에 따른 쓰레기 문제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기도 하는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변화되었던 게 퇴근할 때 동네 슈퍼, 노브랜드나 하나로마트 등 주변 마트를 매일 같이 들르기도 해요. 냉장고에 아이들이 스스로 해먹

으로 수 있는 먹거리를 채워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인스턴트나 에어 프라이어, 전자렌지 등을 이용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아니면 볶음 밥 등 조리한 음식을 급랭해서 만들어 아이들이 바로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을 채워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어느 해보다 냉장고가 꼭 차있어요.

마지막 변화는 지역화폐나 기본소득 논의가 일어나고 실제로 현실로 다가오는 경험을 했어요. 마을에서 외식하는 일들이 잦아졌어요. 하지만 업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한두 달 반짝이었죠. 덕분에 재난소득도 경험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수준 높은 변화도 이어졌다고 봅니다.

사회자 >>



김순천

환경이 기존에는 선택사항이었다면 지금은 생존이라는 말이 되게 마음에 다가왔어요. 가사노동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 여성에게 더 비중이 늘었다는 점, 그리고 쇼핑이 늘었다는 점. 아마 여러분들도 일상의 삶이 변화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상

의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시민 >>

아이들이 대학생이고 고3으로 다 커서 학교 기숙사에 살고 집에는 남편과 둘이 살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 오히려 안 하던 살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집에서 밥을 자주 해먹게 되는 일이 많아지고 여행을 못가니 많이 답답해요. 남편과 예전에는 대화 없는 동거인이었는데 지금은 안 하던 대화를 해요(웃음). 밥은 누가 하나, 장은 누가 보나, 하는 대화가 늘고 있어요.

직장에 대한 부분은 지속협에서 일을 하고 있다보니 워크숍이나 활동들이 많은데 거의 대면회의를 못하면서 앞으로 대한 불안감이 들어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는,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나쁜 건가, 좋은 건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안 해본 질문을 세상에, 제 삶에 대해 하게 되는 것이 달라진 점인 것 같아

요. 철학적이진 않는데 철학적이게 만드는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지금부터는 시민참여코너를 갖겠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찬성과 반대로 나눠서 O, X로 표시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으로 ‘코로나 이후 환경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가’인데요, 환경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표지판 O를 들어 주시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X를 들어주세요. 먼저 O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 >>

저는 안산새사회연대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유진이라 합니다. 저는 살짝 고민하다가 O를 들었는데 X라고 생각될만한 것도 많긴 한데 개인적으로 비염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코로 숨을 잘 못 쉬는데 코로나 이후 미세먼지 농도를 아침마다 보는데 ‘맑음, 좋음’ 뜬 날이 작년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면 대기의 질이 바뀌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O를 들었습니다.

X >>

저한테 발언을 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웃음). 저는 얼썬(별명)입니다. 공장의 일시적 멈춤으로 대기의 질은 좋아지고

바다는 깨끗해졌다고 하지만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심해진 나머지 일회용의 사용이 많아져 어딜 가도 쓰레기 천지라서 좋아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공장들도 '코로나 핑계로 안 돌릴 수는 없으니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경우는 더 잘 돌아가고 밤낮 없다'는 얘기도 듣다보니 코로나 이후 환경이 결코 좋아졌다고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 마스크 한 달 사용량이 평균 6천만장이라 하더라고요. 전세계적으로는 1천 2백억 장이고요. 마스크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다보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정한철 >>

두 분이 말씀을 잘 해 주셨고 사실 O도 맞고 X도 맞는 거죠. 결국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지금은 현상에 불과한 거죠. 미국이나 중국 등 산업, 제조업이 일시적으로 멈췄었고 중국 하늘이 맑아지고,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고, 물에 침전물이 가라앉은 베네치아 소식도 들리고 해안에 바다 거북들이 알을 낳는 것들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현상이고요. 예전 사스와 메르스 때도 공장이 일시 멈춰 공기가 맑아졌지만 그 이후 두배, 세배 이상 공장을 돌려서 탄소배출량이 더 늘어났어요. 최근 탄소배출량이 전 세계적으로 8% 줄었다고 하고 나사에서 대기 측정해보니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런 건 현상이고 정말 이것 때문에 좋아지려면 그린보다 뉴딜에 포인트를 맞추는 경제 개발 중심의 그린뉴딜의 패

러다임 속에 갇히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야 해요. 전기 자동차를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도 제조 공정이나 이후에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 쓰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탄소배출을 유도하고 결국 환경을 파괴하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세계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제죠.



커다란 정책의 문제도 있지만 개개인이, 오늘도 조금 전에 본의 아니게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을 썼는데 텀블러를 많이 쓰시고 장바구니 많이 쓰셔야 하는 개인적인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생산적인 측면에서 기업마다 공장마다 재활용할 수 있고 재사용할 수 있고 계속해서 쓸 수 있는 플라스틱이 아닌 제품을 만들어내고, 생산에서부터 플라스틱 소비를 줄여가야 하는데 이런 선들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러면 우리 사회가 원시로 돌아가야 하나, 이런 질문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에너지를 바꾸면 그만인가. 어떻게 아껴 써야 하는가. 1등급으로 바꾸면 다인가. 그럼 태양광은? 산을 깎는다는 데?’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태문명이라는 고 김종철 선생이나 많은 분들이 오래도록 외쳤던 ‘이 지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미래 사회를 위한 삶의 전환으로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 숙제가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 과제가 해결될 때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때 정말 환경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자 >>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의 시대를 ‘인류세’라고도 하잖아요. 어떤 분은 ‘자본세’라고도 하고요. 그만큼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데 그러다가는 인간이 사라지는 대멸종의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잖아요. 자연을 지배가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인류가 깊게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니 좋은가’입니다. OX로 찬반을 표현해 주세요.

X >>

저는 김송미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이가 없긴 하지만 주위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와 함께 하는 게 365일 중에 5일만 행복하고, 360일이 불행하다고 하더라고요. ‘5일 동안 큰 감동을 받고 행복하다, 하지만 360일은 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5일이 정말 큰 행복을 주어 그 불행한 360일을 버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이 남성분들을 만나면 결혼을 적극 추천하는데 그 분의 여자친구를 만나면 결혼을 하지마라고 반대하시더라고요. 이 사업 준비하면서 더욱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 (웃음), 아이는 어떻게 키우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돌봄에 자기기 원하는 삶과 같이 가면 기분 좋은 삶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것은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코로나가 만든 상황이 돼가지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O >>

저는 얼썬(별명)이라고 하고요, 딸이 하나 있는데 고3이에요. 다른 엄마들한테 이 얘기하면 미움을 많이 받아요. 아이 때문에 귀찮았던 적이 단 한번도 없고, 피곤한 적은 있지만 힘들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이만 옆에 있으면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방학하고 5개월을 함께 있었어요. 그 사이 우리 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같이 하는 시간이 충분히 쉬는 휴식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 교과과정과 학교의 존재 이유에 불만 많고 의문을 품는 사람이다보니 의도치 않았지만 5개월을 충분히 휴식하고 학교를 가니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2학년이 부럽다고요. 우리 아이가 2학년 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성적이 안 좋아서 3학년에 진학을 해야 하는데 그걸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5개월 쉬고 나니 예전에 스트레스 받았던 상황이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쉬고 나니 좋았던 거예요. ‘엄마 나 천재인가봐. 보면 다 외워져.’ 하면서 이번에 시험도 너무 잘 본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쉬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가 우리 아이에게는 좋은 쉬의 시간이 되었고 저도 아이를 옆에 끼고 예뻐하는 시간이었어요.

진지혜 >>

얼썬님 말씀 들으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엄마들은 육아가 적성에

도 잘 맞고 아이랑 있는 게 행복하다는데 그런 엄마들은 어떤 엄마들일까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아이와 함께 있는 게 힘들다는 것을 불행히도 첫째 낳고 깨달았어요. 이 질문은 개인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아이가 돌이고 어리다보니 할애해야되는 노동의 양이나 시간들이 저는 굉장히 많거든요. 코로나로 아이들이 계속 학교도 못가고 학원도 못 가는 상황에서 애를 계속 봐야돼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해야 하는 엄마다보니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긴급 돌봄이나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으면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선택지를 나라에서 많이 제공은 했지만 사실 선택할 수 선택지가 긴급 돌봄에 아이를 계속 보내는 길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큰 아이가 토요일에 하고 싶어해서 미술학원에 등록했지만 코로나로 두 달 가까이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계속 미루고 미뤄지다가 원하는 분들은 보내셔도 된다고 해서 보냈는데 아이가 미술학원에 있는 한 시간 반을 남편이랑 작은 아이랑 같이 있는데 그 시간이 정말 달콤한 거예요. 여유가 있고. 그동안 남편하고 못 했던 이야기도 주거나 받거나 하고. 그런 면에서 일하는 엄마나 아이 연령에 따라 개인차는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집이 가장 안전하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

저는 이재호입니다.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집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게 되니 불안한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X >>

저는 집에 다섯 명이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랑 동생 둘이요. 특히 저는 밖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어서 어머니 동생들이 많이 다니는 것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고 저도 나갈 때 눈치도 보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보니까 집이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라는 생각을 더 못했던 것 같고. 그러다보니 더 나가게 되고 나갔다 오면 어디서 누구를 만났니, 몇 명을 만났니, 또 잔소리하고. 그래서 집에 있는 게 불편했는데 가족들도 똑같이 저를 보면서 불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배현정 >>

어떤 측면을 보는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질문들인데 코로나로

가정에 오래 있으면서 가정폭력이 심해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 같아요. 특히 이 것이 불평등한 모습이 가장 극대화된 것이라 보는데 가정이 가장 안전한 아이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이미 취약계층이어서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이라든지 너무 저 소득층이어서 식사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해왔던 아이들이라든지 모든 것을 가정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중국이나 프랑스는 아동학대가 30%정도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감소했어요. 감소했다면 좋아야 하는데 그게 유의미하지 않는 이유는 대면해서 상황을 파악할 수조차 없는, 왜냐면 학대같은 것은 대면을 해야 하는데 대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잖아요. 실제로 상반기에 아동학대 사건이 많고 가정 환경이 안 좋은 아이들이 기존에도 있어왔는데 그게 더 심화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는 환경적인 문제도 정의, 불평등의 문제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안전한 주거공간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 있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환경이 열악한, 쪽방촌이라든지 반지하에 사는 분들은 주거환경이 안 좋을수록 폭염, 홍수 등이 오면 더 많은 균에 노출되어 생존에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정이 안전하다, 아니다는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 어디인지, 불평등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돌봄의 영역이든 사회문제든 어디에 초점을 두고 볼 것인가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사회자 >>

벌써 한 시간 넘게 이야기를 진행해 왔네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자 >>

다음은 코로나가 번지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들의 구체적인 형태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배현정 >>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원인을 이야기 드릴건데요. 코로나의 원인은 환경적인 원인이 명백하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동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인수(人獸)공통감염의 바이러스를 가진 개체들이 인간들의 생활 속으로 오면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런 환경파괴와 관련하여 거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오는 기후위기가 생기고, 당연히 여름에 전염병이 도는 게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같은 기후변화, 기후위기는 질병이 확산되는 패턴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특히 작년 겨울이 따뜻해서 그때 많은 유충 등 생태계 하위 개체가 많이 안 죽고 번식함으로써 더 많은 병을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신종 전염병 유행은 이제 특별하지 않을 것 같



아요. 그 자체가 자연. 기후 위기의 현상 중 하나가 돼 버렸어요.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한 하나의 문제는 영구동토층이 녹고 있는 거죠. 시베리아, 남극 등이 이미 많이 녹고 있으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예전에는 탄저균이 올라와서 소년이 사망하고 순록들 2천 마리가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러시아에서는 기름이 유출되었고, 영구동토층이 녹으며 시설물이 파괴되면서 숨어있던 박테리아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빙하가 녹으면서 이런 박테리아들이 풀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걸 단순히 음모론 이런 게 아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코로나를 말하면서 환경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죠. 너무 많이 오랫동안 들어와서 무덤덤한데 기후위기는 가장 빠르게 위기로 닥쳐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 환경운동 처음 시작할 때 지구 평균온도가 0.6도가 올랐다고 해서 '0.6도'란 책을 봤는데 지금 1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2만년 동안 오르는 온도가 10년 만에 올라버린 거죠. 생각 이상 빠르게 닥쳐올 위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겪으면서 집단 면역을 이야기하지만 기후위기에서는 집단면역이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다 멸종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상을 유지하면서 변화하기는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코로나로 하늘이 맑아졌다 하는데 지금 현상은 육조에 물이 가득 찼는데 수도꼭지를 잠깐 약하게 잠궈둔 상태라고 보면 되고 언제 물이 칼칼 쏟아질지 모르는 거죠.

코로나보다 더 센 놈이 온다는 말이 있어요. 코로나와 링 위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뒤에 헤비급 기후위기가 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 새롭게 열린 창은 기후위기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많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한철 >>

지금 말씀하신 기후위기와 함께 생태보존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둘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숲을 없애거나 바다를 막아 갯벌을 매립해서 땅을 만들어 공장을 세워온 역사가 100년도 안된 시간인데 이 과정에서 탄소저장고 역할을 했던 탄소흡수원들이 사라진 거예요. 기후위기를 가속화 한 것들이 자연을 훼손하면서 만들어진 거죠. 아마존 열대우림을 훼손하고 팜유를 생산하기 위한 인도네시아의 숲을 파괴하고

적도 부근의 맹그로브 연안습지의 숲들을 파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있는 작은 야산 하나 파괴하는 것도 큰 비중은 아니지만 탄소 흡수원을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문제가 미세먼지랑도 맞닿아 있는 것이고요.

세계적인 환경운동가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결국 인간의 활동을 멈추고 산업구조를 바꾸는 것도 있지만 결국 자연보존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대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연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이의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들 쾌적한 삶을 원하고요. 하지만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는 좀 풀어야지.’ 이렇게 말하죠. ‘저기에 있는 화성갯벌 습지 보호해 주세요, 순천만도 계속 지켜주세요.’ 아르헨티나 극지에 가까운 습지를 지켜주기를 원하면서 ‘내 앞에 있는 저 산과 공간만 있으면 공장 만들 수 있게 허가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어서 좀 씁쓸하죠. 그런 어려움에 요즘은 더 직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땅이 없고 주택이 없어 더 자유롭게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땅과 숲을 자본이나 투자를 목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많은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으로 인정하며 살았으면 하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에 슬프고 참담하기까지 하죠.

진지혜 >>

저는 담당이 돌봄이다보니 돌봄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돌봄의 책임이 개인의 책임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안산 단원구 초등학교에서 확진자 나온 경우가 있는데 맘카페 여론을 봤더니 굉장히 비난하더라고요. 아이가 열이 있는데 학교를 왜 보냈냐 하는 비난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처음으로 내 아이가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는데 만약에 어딘가에서 모르는 이유로 확진자가 되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이것이 전부 개인의 잘못이고 책임으로만 치부되고 확진자가 되면 개인적인 혐의로 가는 사회적인 흐름들이 매우 안타까웠고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과 더불어 시사인 기사를 봤는데 코로나가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던지고 있지만, 교육문제가 코로나로 인해 어느 정도 사회적 문제 수위로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아이가 읽기 수준으로만 해서 학교에 갔는데 온라인 강의하면서 진도가 이미 받아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저의 아이는 제가 일하는 엄마이고 하다보니까 이 받아쓰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속도에서 계속 쓰기가 멈춰 있는 상황에서 저는 고민이 되는 게 학교에서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내가 일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해결해 주지 못하면 눈높이 학습지라든지 과외라든지 개인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해결해 줘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할거면 아이가 학교에 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학교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고민이 계속 들거든요.

지금은 코로나가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고, 방역이 우선이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전시상황이고 그런 면이 있지만 그래도 더 사회를 면밀히, 섬세히

바라봐야 하는 지점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회자 >>

코로나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내밀하게 고민되는 지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이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분들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 >>

저는 홍지인입니다. 저는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1회용품을 많이 쓰고 배달도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비대면 시대여서 배달오면 음식을 문 앞에 놓고 가라고 해요. 사실 저는 여성이어서 이런 비대면으로 변화하는 것이 좋았어요. 미세먼지 없어지고 하늘이 청정한건 일시적 효과라고 생각해요. 잠시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거지 인간이 결국 멈추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토크를 하기 위해 현수막 쓰고, 일회용 컵 사용 등을 하는데 사소한 것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시민운동 하면서 같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잘 안되거든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인가는 하는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고민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오늘 그런 계기가 되어서 좋았고 고민을 함께 나눠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돌봄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없는데 오늘 환경과 돌봄을 연계해서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민 >>

저는 강소영입니다. 결혼을 안했고, 아이도 없고, 가족과 사는 것이 아니라 친구랑 사니까 코로나로 내 삶이 달라진 건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잘 쓰는 것 외에 없지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딜레마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택배를 너무 많이 시킬 수밖에 없지만 택배노동자가 저희 동네에 물건을 배달하 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택배를 시키면



안 되겠구나, 하다가 그러면 택배가 줄어들면 그 분들이 노동이 줄어들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러면 어떡하지, 계속 생각하다보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선거 때도 1회용 장갑 사용하지 말자는 말에 굉장히 공감했는데 또 어떤 분이 지금은 전염병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장갑을 쓰고 이후에 대안 장갑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늘 우리가 지금 당장과 나중에 해결해야 하는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상황이 많잖아요. 이런 딜레마를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또 한번 더 느끼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살아가면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시기입니다.

배현정 >>

환경에 치중해서 얘기했는데 돌봄 영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돌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어 성평등의 문제가 가장 강력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나는데도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차라리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비대면으로 하라고 강조하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시도해본다든지 사회가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보면 어떨까 고민해 봅니다. 돌봄의 영역이 여전히 여성의 영역이고, 여성의 문제만으로 되는 것은 더 집요하게 풀어야 되는데 실제로 잘 되지 않아요. 분리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고민하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합니다.

사회자 >>

코로나가 쉽사리 끝나지 않으리라 예상되는데요, ‘사회적으로 명상을 해야 할 시간이다.’거나 ‘새로운 대지 위에 올라섰다’ 표현까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미래가 불투명한 시간에 우리는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진지혜 >>

여성이 돌봄노동의 전면에 서 있고 가정 안에서 특히 코로나 때문에 노동의 양이 더 많아졌지만 노동의 색깔이나 양이 사실 특별한 것은 아니거든요. 8년여 시간 쪽 해왔고 앞으로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코로나로 인해 응당 하던 일이 드러나서 이야기된다는 게 굉장히 반갑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나 아이 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와는 조금 연관이 없는데 혹시 햄버거병 들어보셨죠? 안산에 유치원 집단 식중독이 발병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느낀 것이 소규모 돌봄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마을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코로나 상황에서 마을이 아니었으면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할 정도로 작은 아이는 공동육아를 하고 있고 큰아이는 지역아동센터를 다니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코로나로 방치되어있는 아이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야외활동을 한다거나 놀이터에서 만나서 다 같이 생활을 해 본다거나 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전환을 시도했고 그게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맞벌이 엄마로서 마을에서 함께 키우며 코로나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느끼는 기쁨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나 아이들을 대규모로 키우고 교육하는 것은 햄버거병 같은 혹은 코로나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아이를 맡기고 싶은 곳은 큰 어린이집, 큰 유치원, 이런 곳을 많이 선호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곳은 오히려 방역이나 전염병 같은 큰 위험에 노출되기 쉽거든요. 앞으로는 돌봄에 대해서는 소규모 돌봄이나 마을 돌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아이들이 마을이나 작은 규모의 모임에서 안정적으로 클 수 있는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그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부적인 지원을 나라에서 많이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한철 >>

녹색평론 지난 5,6월호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연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질문을 했을거라는 거죠. ‘지금 정상인가, 지금 좋다면 과거는 과연 정상이었나, 뭐가 바람직한 모습들이지.’ 이런 질문들.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대로 살 것인가, 와 같은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이를테면 그린뉴딜 정책에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하면 내연기관자동차엔 3만여 개의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전기자동차는 한 대당 만 여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만들기 위해 웬만한 하청업체는 없어져야 돼요. 라인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석탄발전소나 핵발전소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되

면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없어져요. 일자리를 잃은 분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와 마을이 그 분들을 어떻게 돌보고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돌봄과 마찬가지로 경제를 이끌어왔던 바탕들을 어떻게 새롭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고, ‘공부를 잘하면 서울 가야돼. 좋은 직장은 서울에 있어.’ 중앙으로 몰려가는데 지방은 더 심각하죠. 멀리 가지 않아도 그 지역에서, 마을에서 삶의 만족을 가질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나 혹은 구조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할 시기이죠. 좋은 일자리들, 지방분권, 마을의 재생에너지 자립 등 그런 많은 숙제들이 우리에게 있죠. 정부도 시민사회도 그런 것들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배현정 >>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현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베리아 온도가 38도가 넘었고, 중국에서도 홍수로 대규모 댐이 무너지고 있고, 강원도에서 바나나 같은 열대작물이 재배되고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현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현재를 보면 미래가 가늠되겠죠. 환경문제가 워낙 거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문제이고 환경의 소중함을 사람들이 느낄 때는 아주 가까이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주변 공원이나 뒷산을 걸어서 갈 수 있었어, 저는 그런 것들이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개인의 실천도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요즘에 이 문구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세대가 기후위기를 인식한 첫 번째 세대이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다’라는 말이 있던데 위기이지만 기회가기도 하다는 생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바꾸자,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불평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노동의 문제에서 정의로의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지 자본의 문제와 연결하여 판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히 인식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영역을 넘어서는 소통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정리 멘트를 해 주세요.

진지혜 >>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제 개인적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여성의 문제 그리고 돌봄에 종사하고 있는 엄마의 문제, 우리 이웃의 문제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돌봄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양원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서 24시간 돌봄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제가 아이를 맡기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선생님 같은 경우는 12시간을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게 돌봄노동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



의 노동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정 >>

돌봄이 곧 환경과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들, 아이를 키우는 것들이 다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면에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아이를 제 손끝으로 키우지 못하는 미안함이 있어요(울컥). 그렇지만 아이에게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 주고 싶어요.

정한철 >>

어제 밤에 '서프라이즈'라는 영화를 뒤늦게 봤어요. 영화에서 여성 참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평범했던 한 인물이 운동가로 변신해 가는 과정을 감동 있게 봤는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런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져 왔다는 점, 환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안산만 해도 안산 신도시 쪽은 매립된 땅 위에 세워졌는데 셀 수 없는 수만의 생명의 희생 위에 개발된 도시인거죠, 우리가 건설하는 모든 건물은 맹꽁이와 이름도 알 수 없는 작은 벌레들의 희생 위에 있는 거죠.

존재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인정할 때 사회가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지금 여러분들도 그랬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일상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표현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시리즈 토크]

코로나19 시대, 삶의 기록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안산 시민사회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모아내고, 이후 변화의 근거가 되거나 더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기록물로 남기고자 합니다.

토크2

우리 안에 숨어있는 차별 드러내기

"위기의 순간, 타인을 향한 혐오와 차별"

2020. 8. 27(목) 오후 7시
커피공방 피움
(안산시 단원구 호수동 광덕4로 102, 2층)

진행/정리

김순천
(르포작가)

누구나 참여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참가문의
031-413-5230

토크1

코로나 시대의 환경과 돌봄

"코로나19 이후 그려보는 안전한 미래"

2020. 7. 21(화) 오후 2시

토크3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들

"재난 속 가치 확산을 위한 새로운 활동 방식 모색"

2020. 9. 15(화) 오후 2시

-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체크, 손소독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 * 참석하실 분들은 마스크를 지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최 안산시민사회연대

지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본 사업은 '함께하는 공익활동, 지속가능한 경기'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시리즈 토크 2]

우리안에 숨어 있는 차별 드러내기

- 위기의 순간, 타인을 향한 혐오와 차별

일시 : 2020년 8월27일(목) 19:00

장소 : 커피공방 피움

사회 : 김순천 작가

이야기 참가자 : 속파오시다 (사회적기업 문화세상고리 다문화강사)

이슬기 (안산여성노동자회 활동가)

김경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조직위원)

사회자 >>

오늘은 코로나19가 번지면서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10여 분만을 모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작은 공간이어서 그런지 더 정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수다 떨 듯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이야기 참가자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을 해왔는지, 하고 있는지 등 자세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속파오시다 >>

캄보디아에서 온 속파오시다라고 합니다. 한국 온 지 13년 됐어요, 원래 여름에 휴가를 가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휴가 못가고 과수원에서만 보냈어요. 학교 수업을 나가야 되는데 1단계 전에 한 두 번 가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사무실에만 있었어요. 아이들도 학교를 가야되는데 또 안 가게 돼서 집에만 있어요.



속파오시다

다문화 강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12년부터 시작돼서 쭉 지금까지 8년 정도 됐어요. 그 동안 괜찮았었는데 작년까지 하루 세 번 정도 수업을 갔어요. 오전 1교시 오후 4교시까지 엄청 바쁘게 살아왔는데 올해는 아예 한 교시도 못하고 있고, 집에만 있고 사무실에만 있고 하거든요. 너무 걱정 많이 됩니다.

캄보디아 문화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 한국문화랑 비교도 해주고 역사도 알려주고 놀이도 하고 캄보디아 전통춤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워낙 제가 춤을 좋아해서 동작 몇 개를 알려주면 아이들이 잘 따라하곤 합니다.

사회자 >>

속파오시다님 가족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속파오시다 >>

원래는 캄보디아에 있는 오빠 언니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있어요. 일하는 회사 하나가 아예 문 닫아서 월급도 못 받아서 집 안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오빠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생선 장사하고 있었어요. 3톤 트럭으로 하루 서너 번 다니고 하는데 현재는 국경이 아예 문 닫아서 장사도 못하고 있어요. 오빠는 베트남에 격리돼서 2주간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요. 걱정이 많이 돼요.

김경미 >>

저는 96년에 처음 안산에 왔는데 공부하러 왔어요. 안산1대학에 물리치료 공부를 하러왔었고. 그러다보니 제가 좀 만학도였는데 다른데서 대학을 다니고 졸업하고 나서 도대체가 뭘 해먹고 살게 없어서 우연치 않게 소록도에 자원봉사 겸 몸을 피해서 갔다가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을 만나게 됐고 물리치료라는 것을 소개받게 됐고 남들은 편입하는데 저는 수능 시험 다시 봐서 들어갔어요. 참 재미나게 공부했어요. 공부하는 과정에 처음에는 본오아파트 근처 사이동에 살았었는데 제 눈에는 그 지역 아이들이 보이더라고요. 본오아파트 특성상 거기가 이제 임대아파트잖아요? 노동자 가정들이 많았고 그 아이들이, 부모들이 또는 한부모가 일을 나가야했고 야간 근무를 해야 되고...



김경미

부모들이 일할 때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조그만 교회 지하에다 공부방을 열어서 아이들 놀러 오게 했어요. 조그만 슈퍼 앞에 밥 먹으라고 엄마아빠가 준 천원 이천원으로 게임하고 있는 동네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밥을 당장 해줄 수는 없지만 건강한 놀이문화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모아서 공부도

해보려 했지만 주로 농구하고 수다 떨고 하며 살았어요.

안산의 첫 이미지는 저에게는 밝은 곳이 아니었어요.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었고, 이후 병원이나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물리치료를 담당해서 일했어요.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꿈꾸는 집' 요양원에서 물리치료를 들어가고 어르신을 모시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 공간에서 협동조합이 운영되는 체계에 나름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요양보호사들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현실을 접하면서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걸 알았고 그 노동자들이 존중받지 못하면 그 안에 환자나 어르신들도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게 됐고, 전국의 수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있고 따뜻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요양보호사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칼이 될 수

있어요. 노동조합으로 권리를 찾고 그런 담당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 활동을 한지 7~8년 돼요. 보건의료노조에서 현재 전국에 있는 영양보호사 조직, 사회서비스와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어떻게 조직하고 함께 정책을 만들까 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만나는 분들은 간호사나 의료기사들보다는 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 청소미화 노동자들이랑 환자 이송하는 노동자들, 장례지도사 이런 병원에 직접 고용되어 있지 않은 외부 노동자들 만나서 노동조합 만들고 있습니다.

이슬기 >>

안산여성노동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슬기라고 합니다. 저를 소개하려다 보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전에는 부모님에 의지해 살다가 대학생 때부터 자아가 시작되고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계기가 어떤 교양교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교수님이 환경교육을 했는데 좋아서 몇 학기 내내 그 교수님 수업을 듣다가 뭔가 내가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환경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학교 유�휴부지를 개간해서 거기서 나오는 작물들을 학교 앞 식당에 판매하는 활동을 했었고, 학교 구내 식당 음식물 쓰레기를 다 모니터링해서 학생들에게 알리는 활동들,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정화 활동들을 했어요. 전공보다 더 빠져서 그런 활동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시민사회로 나오기도 했고요.

이후 그린캠퍼스라는 대학에서 배출하는 에너지에 대한 것을 알리는 활

동을 몇 년 진행했어요. 그 이후 지속가능발전 민간협력 조직에서 몇 년 활동했었고. 성평등,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등 여러 내용들을 다뤘는데 나에게 와 닿은 것을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있던 중에 강남역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충격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안전에 관한 문제, 나에 관한 여러 문제들이 나 개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일 수 있겠구나,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후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점점 친구들과 나누는 주제들도 비슷해지더라고요. 여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라도 되는지, 어떻게 힘들었는지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요.

그러다 올해 초 안산여성노동자회로 활동가로 오게 됐어요, 안산으로 온 이유는 안산시민사회 활동이 활발해서 좋아 보였고 그 안에 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이 수원인데 출퇴근 시간도 왕복 4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뭔가 안산도 집 같고 수원도 집 같은 이상한 상태예요. 지금 안산 여성노동자회에서는 주로 노동상담을 하고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상담을 여러 가지 배워가면서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여성이고 노동자이니 상담 내용들이 힘든 내용이잖아요. 열반아가며 슬퍼하면서 하고 있고, 그것이 활동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회자 >>

코로나 이후 개인의 삶들이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요? 슬기님, 지난번 사전모임에서 “항상 불안했어요. 내가 안전할 수가 있는가, 남에게 내가 안전한 사람일 수 있는가.” 하고요. “불투명한 느낌, 그게 불안해요”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들이 되게 인상에 남더라고. 코로나 이후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요.

이슬기 >>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알게 모르게 불안감이 쌓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뉴스에서 여러 소식들이 들려오고 ‘무증상 감염자가 있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매번 만날 때 마다 코로나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많은 뉴스들을 접하며 나에 대한 걱정도 생기고 타인에 대한 걱정도 생기고 이게 걱정 이면서 의심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확진자면 어쩌지 내가 옮기면 어쩌지, 저 사람이 나에게 옮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불확실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확실한 게 없는 느낌이라 더 불안해지더라고.

초반에는 최대한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라 해서 집순이로 집콕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림도 그리고 심지어 명상도 하고, 독서도 하고, 한 번도 손에 대보지 않은 십자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했는데 두 달 정도 되니 미치겠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직접 맞대고 온기를 나누며 얘기해야 위로받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있는데 친구랑 약속도 미뤄지고, 스스로 절제하다 보니 힘들더라고.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창구가 뭔가 닫혔

다 하는 느낌이 들면서 ‘아, 이거 언제까지 계속되지? 끝날 순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다니고 있으니 그래도 괜찮은데 계속 육아하면서 집에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감당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집이 수원이다 보니 4시간의 긴 시간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역을 거쳐서, 버스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잡았던 손잡이를 잡고, 옆 사람이 재채기를 하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획 돌려서 쳐다보게 되고 그 사람이 계속 눈치 보면서 목을 넘기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도 아, 이러면서 뜨끔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사람들을 너무 감염자처럼 쳐다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중에도 내가 걸렸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회사에 국장님이 애기가 둘인데, 이제 막 마마마, 뽀뽀뽀 하는 돌이 지난 아이들인데 제가 국장님한테 옮기고 그것이 애들한테 가고 이런 것까지도 상상을 계속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알게 모르게 저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아빠가 가족 경영하는데 지금 일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식당 요즘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찾던 곳인데 요즘은 잘 안되고 하루 2만원 벌기도 해서 주인이 한숨을 너무 쉬니까 ‘어떻게 할까.’ 이러시니까 엄마는 정이 많다보니까 ‘아, 그냥 내가 무급 휴직을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원해서 하는 거 아니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생계에 도움 될 만한 사람이 저랑 엄마밖에 없으니 걱정되죠. 거기다가 가

족에게 옮길까 걱정되고, 생계에 위협받는 것 때문에 걱정되고 그래요.

사회자 >>

슬기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밀한 이야기들이죠. 속파오시다님, 월급은 줄었는데 생활비는 두 배가 들어가고 있지요? 코로나 이후 어떻게 생활이 변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속파오시다 >>

월급이 200만원이 안 되지만 30% 줄어서 엄청 부족한데 아이들이 학교를 일주일 한 번만 가서 점심, 간식 다 챙겨주니까 생활비가 두 배로 들어가요.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되고 적금도 깎어요. 신랑은 쿠팡에서 일하다가 코로나 터져서 거기 그만두고 김포에서 일해요. 건물 13층인데 미화반장이예요. 기계로 청소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일회용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일하고 일해도 계속 늦게까지 일하는 거예요. 월급 그대로인데 일은 두 배가 돼서 힘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을 못 나가서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9월까지 하면 안산 최초 다문화기업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안산에서 다문화기관으로 얼마나 힘들게 만든 회사인데 더 이상 일이 없어서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니 안타까워요. 처음에는 월급 30만원 받으면서 일해서 지금은 100만원까지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바닥에서 열매를 잘 맺어 오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

고 있구나... 조금 더 생각해주면 더 힘내서 월급 줄더라도 계속 끌고 가고 싶어요. 저희는 모임도 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독서모임도 있고, 아이들 학교 갈 때 힘든 점, 아이가 아플 때 어떻게 하나, 혹은 옷 입는 것, 우리나라는 한 계절 밖에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옷도 한가지만 입어도 돼요. 하지만 한국은 사계절이어서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 알려주는 정보교환하는 수다모임도 있고 아이 엄마들끼리 서로 도움 주는 모임도 있는데 그것도 못 나가고 있어서 너무 아쉬워요.

자원봉사도 해왔는데 봉사하는 담당자도 책임을 못 지니까 다음에, 다음에 미루고 있다가 9월에 하려고 하는데 또 미뤄졌어요. ‘지구인의 정류장’(단체명)에 주 1회 가서 캄보디아 말 번역, 통역해주고 있는데 만나



김순천

기도 힘들고 불안하고 그래서 고민되고 있어요. 사실은 누구를 도움 주는 거 저 정말 기분 좋아서 어디든지 달려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사회자 >>

김경미님은 3,4,5월은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일이 없었으나 5월 이후 간접고용노동 자들이 상담을 해와 더 바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차 별에 대한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는 코로나 이후 개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경미 >>

코로나로 일이 없을 때도 저는 여전히 노동조합 일을 하고 있어요(웃음). 코로나가 끝났을 때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 노동교실 교재도 만들고, 영양보호사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은 특수고용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임금체불되거나 불합리한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 개별 상담 받고, 그분들에게 노무사처럼 임금 계산해주고, 연차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상담해주고... 1:1로 그렇게 일을 하며 지냈어요.

전국 공공복지 관련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데는 사실 속내가 있어요. 내가 나중에 몸이 안 좋아서, 나이가 들어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오면 가족도 없고 국가의 돌봄을 받고 싶은데 제대로 받고 싶어요.

어르신들 만나다 보면 질병으로 인해 언어 표현이 안 되고 몸을 못 움직이는 경우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등 의료진들이 그의 눈빛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도움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제대로 된 돌봄을 받고 싶은데 그러려면 그 안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정말 환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하고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노동조합을 조직할 때 어디가서든 선생님들보다 제가 먼저 치매가 올수 있어요. 그럴 때 저도 제대로 된 돌봄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환자 중에 치매에 걸리신 분이 있었는데 치매 걸리면 안하던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치매 중 과시형이 있는데 ‘왕년에 내가 말야, 국무총리하고 이런 관계였어.’ 이런 어르신이 계셨는데 제가 그런 부류의 하나가 될 것 같은 거예요(웃음). 요양보호사 분들에게 ‘내가 왕년에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노조 일을 열심히 했는지 알아? 당신들이 하는 일 내가 잘 알아.’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말들이 거짓말이 되게 하지는 말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조합 일을 하고 있거든요(웃음). 원래 제 꿈이 호호할머니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늙어서 마을공동체의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할머니 냄새나요.’ 가 아니고 무릎에 앉아서 ‘그림책 읽어주세요, 옛날이야기 해주세요.’ 하며 친근히 다가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늙어가는 게 꿈이에요. 그러다보니 노동조합을 하게 됐고 코로나로 인해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 일 성향상 사람들을 대면해서 만나고, 고충도 듣고, 조직하고, 교육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을 못 만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현장에서 굉장히 차별하고 있고, 송곳처럼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는데 그런 사람들 만나서 안내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고, 조직이 되면 사용자 만나서 교섭을 해야 되는데 그게 5, 6월부터 끊기기 시작했죠. 병원이나 요양원 내에서 차별이 오히려 도드라지는 상황입니다.

간접고용노동자, 요양보호사 연령들이 50,60 중년 여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분들을 교육시키는데 젊은 세대처럼 온라인으로 하거나 화상회의를 하거나 이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사용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교육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본인들이 부당함을 느끼고 사용자에게 요구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핑계 대고 만나주지도 않고 만나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라 교육을 받고 싶지만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 분들을 도와드리지 못해 답답합니다.

사회자 >>

코로나 이후 자신의 생활에서 차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요. 사전모임에서 들어보니 ‘차별’이 매우 작고 내밀하고 일상적이었고 코로나 이후 기존의 차별들이 더 심화된 형태로 드러난 느낌이었어요. 속파오시다님, ‘마스크가 오히려 우리를 가려주어 거리에서의 차별은 그 전보다 덜 받은 느낌’이라는 말씀하셔서 좀 재미있는 현상 같았어요. ‘그렇지만 학교에 수업하러 갈 때는 학생들의 허락을 받고 가야했다.’고 했지요? 어떠세요.

속파오시다 >>

학교에서 코로나 이후 조심조심하잖아요. 어떤 학교에서는 ‘퀴즈도 많이 하고, 선물도 많이 주세요.’ 하는 곳도 있고, 어떤 학교는 ‘학생들에게 허락받지 않으면 옆에도 가까이 가지마, 퀴즈내서 맞히는 학생에게 선물 주는데 먹는 것 절대 안돼, 선물 주지마.’ 이런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내가 미리 물어보고 ‘괜찮아요, 선생님.’ 그러면 그 때는 수업가고 그렇지 않으면 수업가지 않아요. 원래 수업가면 문화수업이기에 체험이 있어야 재밌는데 체험 없이 수업하면 너무 밋밋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학생들은 얼마나 더 느끼겠어요. 선물 하나라도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학교)선생님이 하지 말라니까 어쩔 수 없었거든요. 너무 아쉬워요.

학생들도 자기 반에서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해요. 서로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지내니 로봇 같아요. 쳐다보고만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 아이들도 학교가면 그런 모습할 텐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학교 가기 엄청 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 체크하고 손 소독 다 하고 수업에 들어가고, 학생들도 쉬는 시간 끝나면 바로 손 소독하고 수업하는데도 먹는 거는 손으로 까서 마스크 벗고 먹으면 바이러스 들어온다, 이러면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학교 교장, 교감이 명령하니까 선생님들도 못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그냥 감옥 같아서 자유가 없어요.

제가 중학교에 갔는데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친구들이 서로 부르고 그러는데 선생님들이 “야”하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코로나도 무섭지만 선생님이 더 무서워요(웃음).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얼음이 돼 버렸어요. 선생님도 쉬는 시간에 쉬지 못하고 밖에서 한명 한명 5미터씩 간격 유지해서 못 뛰게 안전 주의시키고 있어요. 저도 힘들었지만 담임선생님도 힘들었을 거예요. 담임 선생님들도 명령받아서 하는 것이라 힘들잖아요. 직원이니까 윗사람 말 잘 들어야 하니 이해해줘요.

어느 고등학교는 선생님이 많이 놀아달라고 해요. 아이들이 시험도 보고 스트레스 받고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 제발 놀아 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도 살짝 (안전주의 따르는데) 습관됐어요. 코로나 통제하는 것에 익숙해져버려서 그렇게 부탁하셔도 많이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 어길 때도 있어요. 전통 옷은 원래는 못 가져가는 건데 몰래 두벌을 가져가서 보여주니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먼저 제가 아이들에게 소독하는 거 보여줘요. 이 옷은 딱 한 명씩만 입고 소독하고 또 한 시간 후에 입을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한번만 입게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 주었어요. 그 학교만 특별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못했던 것을 한꺼번에 다 풀린 거예요. 너무 신났어요.

외국인이다 보니 혹시나 고향인 외국에 갔다왔나 걱정해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질문들에 열 살짝 받아요. 내가 외국인이라고 꼭 외

국 갔다오는건 아닌데. 한국에서 자꾸 비교해요. 한국은 괜찮은데 하면서. 며칠 전에 친구가 집들이해서 휴지같은 걸 사러 갔는데 외국인인데 한국말 잘 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마스크로 가려도 소용없었더라고요(웃음). 제가 외국인이 아니고 이제 한국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보고 외국인이네, 하니까 기분이 그다지 좋지는 않지요. 저는 다문화가정이란 말이 없어지면 좋겠어요. 고려인도 한국사람 인정해 달라는데 다문화가정도 국적이 한국이거든요, 그냥 한국가정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구분되는 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다문화가정이라고 구분되는 것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한국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건 전에는 버스 탈 때만 하는데 공원에서 잠깐 운동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마스크 잠깐 내렸더니 누군가 왜 마스크 안 쓰냐, 코로나 안 무섭냐 이렇게 뭐라 하더라고요. 좀 따지고 싶었는데 나도 운동하느라 힘들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나도 코로나 무서워요. 나한테 오는 것도 엄청 무서운데.

사회자 >>

슬기님. 코로나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늘었다고 하셨지요? 코로나로 여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이슬기 >>

직장 내 성희롱이 작년에 비해서, 몇 달 전에 비해 확실히 늘긴 했어요. 전국적으로 다 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 분석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서 코로나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식을 하다가 신체적 접촉, 엉덩이를 주무른다든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 트라우마가 남는

거죠. 수치스런 상황인데 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유형이 다양하지 않고 대부분 비슷해요, 어떤 상사는 ‘너 휴가기간 비워 놔라, 나랑 휴가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팔뚝을 꼬집는다든지, 겨드랑이 만진다든지, 뺨에 뽀뽀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고 있고 한번은 ‘너랑 긴히 얘기할 게 있다, 나와라’ 해서 산책하면서 손도 잡고, 허리도 두르고, 이런 식의 스킨십, 성희롱하는 상담이 들어와요. 이 분들이 요즘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대응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이 많아요. 예전엔 회사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싶다,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 요즘은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이 회사에 잘 다니고 싶는데 어떻게 할까요, 말하시고, 그렇게 하다보니 저희가 도와드리기까지 많은 제약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이슬기

때문에 취업난이 심각해져서 미래에 대한 고민, 걱정이 더 커져서 그런 듯한 생각이 들어요. 보통 내담자들은 연령이 다양하지만 그중 20,30대가 많고 비정규직, 간접고용 등 불안정한 일자리 노동자들이 이런 성희롱에 많이 노출되는 양상을 보이더라고요.

성희롱 외에도 코로나가 여성 일자리 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여성혐오를 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성노동자회에서 매년 ‘임금차별 타파의 날’이라고 해서 여성과 남성의 차별을 드러내는 일을 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18일에 진행을 했어요. 1년을 남성임금이라 치면 여성의 임금은 5월18일까지예요. 그 이후부터는 여성이 무급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로인 거예요. 올해의 이슈는 재난과 젠더였어요. 여성 일자리가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 사라지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고 가려어지는 이유가 뭔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후 오마이뉴스 등에 매주 한번씩 기획기사를 내면서 MBC 등에서 인터뷰가 들어오고 관심이 조금 늘어났어요.

오마이뉴스 기획기사 사례를 보면 첫 번째는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일하는 20대 간접고용 여성노동자예요. 원청에서 ‘라운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한명을 감축해라’고 오더가 내려온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무급으로 일하면서까지 그 사람 빈자리를 채우려고 일을 해요. 그렇게 하다보면 코로나도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어느 날 집에 가는 길에 단체카톡방이 생기면서 원청에서 ‘더 이상 고용이 어

려우니 당신들을 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는 정규직 둘 정도 빼고 다 간접고용 여성 노동자들인데 해고돼요.

또 다른 사례는 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인데 코로나로 인터넷 강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 당신들은 4월-8월까지 노동시간의 반을 줄여서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을 해 봤는데 실제로는 모든 시설물은 다 사용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으로 줄인 시간 내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동강도가 엄청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남성 비정규직들은 그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노동자들만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경주 숙박업소 일하던 분인데 비정규직이었어요. 무급휴직을 해라, 하면서 당신들에는 휴직급여 못준다, 한 거예요. 정규직에게만 휴직급여를 주고요.

이번에 드러난 위기는 처음이 아니고 IMF 때도 비슷한 양상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 사라진 일자리의 75%는 여성 일자리였다고 해요. 가장 빨리 해고되고 가장 불안정한 일자리로 복귀로 한 게 여성 일자리인 거죠. 이후 비정규직에서 여성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고 남성은 감소세였다가 지금은 유지세예요. 비정규직 중에서도 남성이 25%고 여성이 53%,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의 여성화가 계속 진행이 됐어요.

올해 2분기에만 4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는데 그 중 여성이 25만 명이라

고 해요. 비정규직을 비롯 서비스업 등 대면적인 일을 하는 많은 여성들의 일자리 감소했다고 하고,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20대 여성이 가장 타격을 받았고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20대 초반 여성이 가장 실직을 많이 했어요. 작년 대비 여성 20대 노동자가 그렇게 피해를 입었음에도 똑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남성 20대 상용직은 취업이 더 많이 늘었어요. 이런 취업시장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상대적 빈곤율이 13.5% 늘었대요. 이유가 남성이 가계의 생계부양자고 여성은 가장이 아니다, 라는 인식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위기 시 여성비정규직을 먼저 내치는 방식으로 위기를 해결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전선 사회복지 쪽 70%가 여성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도 여건이 안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비정규직이라든지 임금이 적고 불안정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돌봄에 대해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자 >>

경미님, 병원노조 비정규직에게 방호복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에 대해 일상적인 차별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김경미 >>

코로나가 터져서... 병원 사업장은 공공사업장이잖아요.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기에 병원협회에서 마스크를 1인당 1개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일하는 노동자들 전체 다 세워서 지급해야함에도 간접 고용노동자들은 대부분 빠졌어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 다 직접 고용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환자를 이송하는 분들, 간병인들도 환자가 불러서 온 특수고용노동자이고요, 심지어 간호병 통합 서비스라고 병원에서 돌봄노동을 하고 있는 영양보호사들이 있어요. 간호사들이랑은 다 직접고용인데 이 분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또 보일러나 에어컨, 엘리베이터 등 기계설비 하시는 분들, 병원 내 보안팀들도 대부분 간접고용 노동자들이고요.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들, 상조서비스 회사 노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청소 뿐 아니라 세탁

하는 린넨실의 노동자, 간호조무사들도 간접고용이 많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마스크 지급을 이런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대부분 누락시킨 거예요.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정규직에게 가서 너희들 받을 때 비정규직 것도 받아주라고 요구해서 받은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안산○○병원 경우도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는데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마스크 두 장 준대요. 청소하시는 분들은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바닥만 닦는 것 아니에요. 병원 안에 들어가면 환자들이 있는 손잡이, 침대, 이런 곳곳 다 닦거든요. 밑에까지. 몸을 굉장히 움직여서 하시는 분들 이에요. 그런데 땀이 나거나 습기가 차면 마스크를 갈아줘야 돼서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두 장 주는 상황입니다. 하루 두 장이 아니고. 이렇게 썼던 마스크를 걸어놓고 퇴근하고 이름 써놓고 퇴근하고, 바이러스는 공평해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누구나 걸릴 수 있죠. 환자들하고 접촉을 하기만 하면. 그러나 대응은 굉장히 불공정하고 차별이 존재하죠.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마스크도 이런 상황인데 방호복은 더 하겠죠. 방호복을 주지 않아 확진된 분도 있어요. 서울 ○○병원에서 환자 이송하는 노동자인데 코로나 확진 환자 있다고 모셔오라고 한 거예요. 의료진들은 환자 돌보면서 방호복 입고 자기 보호 장비를 갖추면서 하는데 확진환자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병원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 아니라고 방호복 지급을 안 해준 거예요. 어렵게 어렵게 마스크, 장갑만 구해서 확진 환자를 이송하다가 코로

나에 걸렸어요. 세 달 정도 입원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해고였어요,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되어서 부당하고 구제신청을 한 상황이에요.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이런 큰 병원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가장 큰 건 그거죠. 정규직, 비정규직들의 내부에서의 차별들도 심하다는 거죠. 간호사들의 태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갑질 문화 중 하나거든요. 예전엔 임신순번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사직순번제가 있어요.

저는 내부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노동조건이 더 열악한 분들을 만나다보니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현재 의사들이 파업이라고 하는 집단행동하고 있잖아요.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간호사들에게 너무 과하게 일이 요구되고 있어요. 의사가 하는 일을 간호사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러면 맨 위 수간호사가 같은 직종 아래 간호사들을 태우기 시작하고 태움을 당한 간호사들은 같이 일하고 있는 의료기사들이나 간병인들, 간호조무사들을 태우는 거죠. 근데 또 같은 간접고용임에도 간호조무사가 간병인, 영양보호사들은 태워요.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건 이 영양보호사들이 같은 간접고용노동자인 청소노동자들을 태워요. 청소노동자들은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을 태워요. 서로가 서로를 깔아먹고 서로를 차별하고 있는데 그런 문화들이 굉장하거든요. 그런 문화들은 계속 존재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드러난 거죠.

그래서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을 비롯하여 간접고용노동자

들이 쉬는 공간인 각 병원 휴게실을 다 조사를 했어요. 상황이 어떤지.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OO의료원이 또 하나 생긴 지 얼마 안됐거든요. 그 곳의 간접고용노동자 휴게시설과 환기시설을 다 조사한 결과 환기시설 93%가 멈춰있어요. 병원 측에 이야기했더니 우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 아니니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 병원 시설물인데. 환기시설이 안 되면 빨래나 건조를 하는 린넨실만이라도 선풍기를 지급해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계속 돌려야 하기 때문에 엄청 고열인거예요. 간접고용 업체에서 선풍기를 지급해 준다고 해서 달려고 했더니 병원에서 설치를 못하게 했어요. 미관상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해요. 병원 사업장에서의 차별이라는 것은 전반에 깔려 있어요. 노동은 각각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각자 소중한 일들인데 그 노동들이 존중되지 못하는 것의 반증인 거죠. 그 이면에는 이 분들의 인권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구나, 알려내야 하고 바꿔내야 하고 찾아내야 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죠.

요양보호사들 차별을 보면 호칭에서부터 시작돼요. 안산의료사협에 노동조합 생긴지 6~7년 다되어가는데 아직도 야, 너, 아줌마, 라고 불러요. 증언대회 하면 놀랄 일 많죠. 시골에 요양업무 가서 누구냐고 물어보면 ‘응. 우리집 파출부’라고 소개하고 실제로 마늘농사, 김치 담그기 일도 시킨대요. 그나마 병원사업장에선 아주 높여서 여사님이라고 불러줘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혐오의 반증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국가적으로 봐서는 여성노동자들이 평가절하되어 있다 보니 임금자체도 최저임금만 줘야해, 희한하게 이런 인식이 깔려있어요. 그 이상을 주면 안 되는 것처럼. 특히나 4대 보험도 제대로 들어있지 않고요. 재가 요양사들은 집을 방문하려고 하면 코로나도 안 걸렸고, 마스크 꼭 쓰고 그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거부해요. 남이 방문하는 게 싫은 거죠. 보험에 들어있는데도 휴업수당도 받지 못하고 그냥 일자리 그 자리에서 잃게 되는 경우 다반사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이후 각 지역에 전담병원이 생겼는데 그곳에는 코로나 확진환자들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있었던 간병인들은 전담병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기존 일반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분들인데 그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집으로 가야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분들은 그냥 해고된 거예요. 전담병원에서 다시 일반병원으로 원상복구 되더라도 고용 안하겠다고 통보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전담병원 지정이후 일자리를 잃고, 휴업수당도 못 받고, 65세 이상이면 고용보험도 못 들어있기 때문에 실업수당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해서 문제 되고 있어요.

경기도 광주 요양원 등 두 군데서 코호트(집단분리) 격리를 시작했거든요. 격리가 시작되면 노동자들 동의를 구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거기서 먹고 자고 어르신들을 돌봐야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데 당연히 해야되는 것처럼 했어요. 심지어는

이번에 대구동산병원으로 달려간 의료진들에게는 생명수당을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거기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은 특별한 상황이고 다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없었던 거죠.

경기도에서 요양보호사 코호트격리를 시켰을 때 광주 요양원에 보낼 요양보호사들을 모았어요. 7명을 모집했는데 14일 근무하는데 500만원 주겠다고 돈으로 사람 모으는 방식으로 했어요. 실제 코호트 격리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어르신이 확진이 되는 경우는 이 어르신을 누가 돌봐야 할건가, 사실 원래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돌봐야 되는데 돈으로 새로 잠깐 고용했다가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정책으로 가다가는 이것 또한 차별을 이용한 그런 고용 정책일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돌봄의 영역에서 정말 핵심은 그 어르신이 돌봄 받고 싶은 최상의 서비스 질,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 돌봄이 어떻게 되야 하나,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려면 가장 차별적인 인권에 대한 의식 성장이 전국민적으로 보호자도, 수급자들도 마찬가지로 먼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감정도 분명 사고를 담고 있다’고 미국의 여성학자 마사 너스바움이 말한적이 있는데요, 혐오의 감정 또한 어떤 한 사람, 집단에 대한 가치판단이 들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혐오는 분노와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혐오는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부의 표현이어서 혐오의 대

상을 제거하려고 하면서 공격성을 드러냅니다. 훨씬 위험한 감정이에요. 일상 속에서 혐오를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속파오시다 >>

코로나 처음 시작 할 때 캄보디아에 3박4일 동안 외국 봉사활동 갔었는데 계속 한국 뉴스를 봤어요. 가짜뉴스가 뜨더라고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안산역에서 쓰러졌다는 이런 뉴스가 떴어요. 그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계속 안산역 갔었거든요. 원래는 학교 끝나면 안산역 근처에서 반찬거리도 사고 그랬는데 너무 놀라서 가족들한테 전화하고 그랬어요. 정말 간 떨어질뻔 했어요. 캄보디아에도 코로나 있어서 ‘혹시 한국 들어와서 격리되면 우리 가족 어떻게 하지, 아이가 아직 어린데, 우리 신랑은 걸레질도, 밥도 잘 못하는데..’ 이런 걱정 많이 했어요. 상상으로 내가 한국가면 코로나 때문에 가정 어떻게 하지 상상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안산에 외국인 많이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전국에서 보면 안산에는 먼저 걸릴 거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다른 지역은 코로나 환자가 먼저 나와도 상관없는데 안산에서 첫 번째 나오면 외국인 많아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제발 나오지 마라, 이런 우려 많이 했었어요.

제가 아는 선생님 중 원곡동에 사는 분이 있어서 전화해봤는데 가짜뉴스라고 해서 엄청 기뻐했어요. 이런 가짜뉴스에 좀 벌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놀리고 장난쳐요. 얼마나 무서운 바



이러스인데. 벌을 많이 줬으면 해요, 두 번은 못하는 걸로.

사회자 >>

초기 코로나 때 환자들이 많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혼자 격리된 채 아프고,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세상을 뜨는 그런 순간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장례식도 못가지, 애도도 못하지, 그런 상황이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죽음 자체가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의 생명이 버러지는 느낌도 들고. 그것이 힘들었어요.

속파오시다 >>

지금은 물론 학교 못가거나 그렇긴 한데 코로나는 누구나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무서운 것보다 걱정이 많아요. 특히 가족한테. 저는 외국에서 혼자 왔고 아이들은 저밖에 모르는데 아직 어린데 부모가 꼭 필요한데 갑자기 내가 걸린다면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어떻게 돼요. 요즘도 또 힘들게 사는데 코로나까지 걸리면 얼마나 힘들까, 상상만 해도 힘들어요. 저도 첨에 그냥 1, 2, 3차 접촉 이후 빨리 잡을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유행되니까요. 자유롭게 사는 사회가 아니라 지금은 집안에 있는 감옥 같은 느낌이에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고 그래야 되는데 주말에도 집에만 있어요. 밖에 나가면 눈치보고. 원래 주말에 도서관도 가고 그랬는데 집에 있으면 전기세 많이 나오고 계속 에어컨 틀어야 되잖아요. 도서관 가면 아이들 책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책도 저는 인터넷을 잘 못해서 직접 보고 빌리고 해야 되는데 어렵고. 저도 기도해요. 원래 사회로 돌아가고 싶다, 원래 그런 말 안하고 싶었는데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해요.

이슬기 >>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가장 무서운 것이 뭐지? 떠올린 게 연애를 하고 있는데 연애를 하다 돌이 걸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 어딜 다녔고 동선이 다 드러나는 것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제 남자친구는 별로 그런 생각은 안하더라고요. 내가 욕을 먹을까 두렵다 하는 생각들을 평소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녹아있던 혐오

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터넷이 이제 혐오의 온상이 아닌가 생각돼요. 감정적인 혐오를 보자면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다 싸우고 있어요. 싸우는데 혈안이 되어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글은 하나도 없고 도대체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새롭게 개발하는 자원이 부족해서 한정된 자원으로 다른 사람 것을 탈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방식으로 그래야만 자기 생존이 위협받지 않을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파이싸움의 형식으로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나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에 사회적 전체의 이익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그리고 나를 대변하기 위해서 나와 비슷한 집단들이 모여 집단 간 싸움으로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성이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한다, 이러면 남성이 우리도 힘들어, 이러면서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는 보지 않고 싸움으로 이어지기만 해서 합의점을 찾아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복잡다난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만 많아 이제는 지쳐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회자 >>

이번에 서울역 사건이 좀 충격이었어요. 갑자기 가다가 길을 가는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서 광대뼈가 함몰됐잖아요, 강남역 사건도 있기는 했지만 길거리에서 이렇게 대놓고 할 정도로 대범해지는 걸 보고 많

이 놀랐어요.

이슬기 >>

코로나 스트레스가 쌓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들은 항상 있어 오기도 했어요.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집회를 열면 어떤 남자가 와서 흡연부스에 휘발유를 붓고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누가 와서 흡연이라도 하면 발화가 돼 사람이 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런 폭력적인 행위들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곤 해요.

예전에도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가 있기도 했어요. 기념품에 성평등이 민주주의 완성이라고 썼는데 그 문구를 보고 어떤 분의 남편이 그거 들고 다니면 맞을 수도 있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조차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구나, 하는 무서움이 들었고. 저도 그런 경험이 없지는 않아요. 안타깝고 씁쓸해요.

김경미 >>

노동자들 중 혐오의 문제까지 간 노동자의 직종이 있어요. 큰 병원 같은 경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통역하는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이번 코로나 이후 이 노동자의 3분의 2가 해고를 당했어요. 국적이 중국, 몽골 노동자들이예요. 환자가 줄어서도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니 코로나가 처음 터진 중국분이어서 해고를 당한 거예요. 니네 가족들이 문제가 터지니 한국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해고

도 문제인데 그 이후 병원 출입금지를 했어요. 일자리의 문제를 넘어 혐오의 사례라고 생각되거든요.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중국국적 노동자가 해고되어야 하고. 안산에서도 가짜 뉴스가 한번 유포되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서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돌봄 노동자 대하는 환자들의 태도도 놀라워요. 간호사들의 방호복, 매일 치료를 해야 하니 간호사들은 호흡기 체크도 해야 하고, 약 주고, 열 체크도 하고, 식사도 다 챙겨줘야 하고 심지어 어르신들은 머리 감기거나 목욕까지. 대소변도 받는 일들을 다 간호사들이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환자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문제나 특히 치매있거나 하는 어르신들은 나와 유대관계를 맺지 않던 사람들에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호복을 입은 모르는 간호사들이 갑자기 어르신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격리된 환자들이 폭력, 폭언을 행사하는 증언들이 많이 나와요. 이 분들도 두려움의 표출이에요. 왜 나만 걸려야 해, 하고 간호사의 방호복 찢어서 감염되는 사례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돌봄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상적으로 케어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되고 평소 교육 필요하죠. 그래서 감염예방교육 같은 걸 했어요.

대구로 자원해서 내려간 사람들은 베테랑 간호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임상을 한 번도 뛰여보지 못한 이제 막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보내서 배치시켰어요. 이들은 방호복을 어떻게 입는지, 채혈을 어떻게 하는지, 에크모(호흡기 연결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요. 거기 달려간 수간호사 이상이 되는 베테랑의료진들이 이제 막 신규 졸업한 사람들, 자원봉사들 하나하나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는 상황인거예요. 시스템이 부재해서 현장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는 경험해봤으니 그것들이 만들어져야죠. 미리 매뉴얼이 만들어져야죠. 사명감을 가지고 갔던 간호사들조차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해요. 아비규환이었고 무엇을 위해 일하는 상황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고 업무 매뉴얼 등도 앞으로 예측가능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자신의 분야에서) 이런 차별과 혐오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대안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김경미 >>

계속 말씀 드렸는데 노동 존중과 그 뿐 아니라 돌봄의 영역 그리고 일상을 사는데 있어서 인권에 대한 그런 인식들을 재고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슬기 >>

여성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서 당사자로 드러내야 된다, 그래야지 세상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동영상 30분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뤄지는데 가치를 제

대로 답아서 성인지적 관점이 더 담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법적으로 여성 노동자 안전에 부분이 모성보호법 중심으로만 이뤄져 있어요. 실효성 있게 여성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 얘기하지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관점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으로 돌아온 돌봄노동 때문에 이중삼중 겪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고통이 사실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특히나 사회적 돌봄이 언제 정상화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정부정책은 반쪽이라고 보고 돌봄 정책에 관해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성노동자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속파오시다 >>

외국 사람으로만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말고 우리 동네 사람이다,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회사가 학교를 못나가니 2학기를 기대 많이 했어요. 결국 2학기도 지금 다 취소 연락만 와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사회자 >>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 본 결과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있지만 코로나가 왜 우리에게 왔는지 멈춰서서 그것을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도 야생 동물의 몸에 그대로 있으면 안전하고 인간과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살 수 있

있을텐데 지금은 적대적인 존재가 되었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자신에게 각인된 코로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이슬기 >>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불안’이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전환의 계기’라고 생각해요. 탈성장으로의 논의를 좀 해야되지 않겠는가, 코로나가 얘기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 개발 중심으로 동물과 식물 자리를 빼앗아왔었다면 이제 너희가 받아야 할 업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얼마 전에 뉴스 보니 대벌레나 나방이 많이 생겼다고 자꾸 방역을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해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건가. 어차피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건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문제를 같이 많이 이야기를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속파오시다 >>

한국에서 10년을 살았는데 3~5년 사이에 항상 바이러스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바이러스는 결국 균인데 내 생각은 균은 동물의 몸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동물 잡아먹으면 다시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예요.

김경미 >>

코로나 그 자체로는 별로 두렵지는 않아요. 금방 말했듯 신종플루, 메르스, 사스 등 4년에 한번씩 왔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도. 앞으로도 자연이라든지 기후위기 등을 통해 그 주기가 짧아질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가 걱정인 건 기저질환 환자들이 사망하고 있고 감염자들의 고통을 익히 알고 있고 사망자 속출하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어떤 양상으로 발현될지 모르는 것이기에 두려워서 우리가 더 공포에 떨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방역만 하면 또 다른 변종이 분명 생기거든요. 검증되지 않은 백신이 개발되고 강력한 걸 쓸수록 변종은 더 강해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예방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방차원에 더 초점을 뒤편 거 같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는 데서,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두려운 것인데 극복이 아니라 결국은 공존하면서 가는. 독감예방접종을 맞지만 죽음에 이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처럼 역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회자 >>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속파오시다 >>

가족들과 밖에서 자유롭게 지내고 자라는 과정 사진 찍고, 사진이 아이들에게 남거든요. 지금은 감옥같은 사회기 때문에. 우리는 평범한 가정이

자유롭게 누구나 만나고 마스크 없이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해요.

이슬기 >>

인터넷에 서울 사람 없는 곳, 이렇게 치면서 찾아가며 가고 싶지 않아요. 저희 사무실에 성희롱 등 문제들로 전화오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미 >>

코로나를 계기로 곳곳에 만연되어있는 특히 병원사업장에서 돌봄 노동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차별적이고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인권의 기재를 알려내고 평등하게 알려냈으면 좋겠어요.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말 너무 많이 듣고 자랐는데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귀와 천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과 동의를 얻어서 이 땅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좋은 세상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회자 >>

참여하는 시민분들에게도 코로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잠시 물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민(김송미) >>

생각을 해봤어요. 코로나 하면 저한테는 ‘무기력함’이라고 해야되나. 제

가 손쓸 수 상황이 아닌 거다 보니 활동하면서 무기력함을 많이 느낍니다.

시민(김영경) >>

마스크 속에 가려 있지만 눈으로 전하는 혐오와 차별이 있잖아요. 믿음이 깨지고 신뢰가 무너진 것 같아요. 누군가 마스크를 코 아래로 내리면 모르는 사람인데 당장 올리라고 말하는 게 예전에는 없었던 말과 눈빛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의 사람과 사람간 믿음이 깨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자 >>

오늘 긴 시간 모두 고생이 많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슬기님이 오늘은 이야기를 안했는데 며칠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사람을 의심하게 돼서 괴롭다고요. 사람을 의심하는 나를 의심해야 한다고요. 그 지점을 멈춰서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코로나로 눈빛이 변하는 우리들요. 감사합니다.

[시리즈 토크]

코로나19 시대, 삶의 기록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안산 시민사회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모아내고, 이후 변화의 근거가 되거나 더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기록물로 남기고자 합니다.

토크3

코로나가 우리에게준 것들

"재난 속 가치 확산을 위한 새로운 활동 방식 모색"

2020. 10. 6(화) 오후 3시
극단 결판 연습실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20 4층)

진행 강소영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대표)

기록 김순천 (르포작가)

"코로나 전후, 어떻게 지내시나요?"

"우리에게 '거리'와 '광장'의 의미?"

안산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문의
031-413-5230

토크1

코로나 시대의 환경과 돌봄

"코로나19 이후 그려보는 안전한 미래"

2020. 7. 21(화) 오후 2시

토크2

우리 안에 숨어있는 차별 드러내기

"위기의 순간, 타인을 향한 혐오와 차별"

2020. 8. 19(수) 오후 7시

-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체크, 손소독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 * 참석하실 분들은 마스크를 지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최 안산시민사회연대

지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본 사업은 '함께하는 공익활동, 지속가능한 경기'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시리즈 토크 3]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것들

- 안산활동가들의 코로나19 이야기

일시 : 2020년 10월 6일(화) 15:00

장소 : 극단 걸판

사회 : 강소영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대표)

이야기참가자 : 안산시민사회단체 회원들

사회자 >>

사실 안산시민사회연대에서 코로나가 처음 확산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잘 살고 있나 둘러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준비했고, 기획할 때만 해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돌아보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게 됐습니다.

활동가로서의 삶이기도 하고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더욱 부각된 것 아닌가.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들. 환기가 될 수도 있고, 불편함이 될 수도 있고,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생각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은 패널 토크, 오늘은 참여한 활동가 모두가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회자 >>

근황을 나누면서 서로 소개도 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코로나 전과 후의 삶은 과연 달라졌나, 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임윤희 >>

안산청년행동 더함 대표입니다.

코로나가 닥치면서 정말 난관이 많았어요. 이 단체에서 올해부터 대표활동을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포부가 굉장히 많았어요. 일반 시민들도, 청년들도 많이 만나야지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두려움에 회원들도 모임에 잘 나오지 않았어요. 뭔가 사업을 새롭게 구상하고 기획하는 것도 누군가 걸리면 전반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두려움에 상반기는 거의 아무 것도 하지 못했어요. 대부분 온라인으로만 활동해서 아쉬웠고 부족했어요. 그래도 점차 활동이 시작되고 있지만 안 나오는 회원들은 여전히 잘 안 나와 많이 답답해서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여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 방식, 화상이나 이런 것을 고민도 해보지만 여전히 대면을 통해 청년들은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고민속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사업을 시작한 것은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고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소규모 모임을 하자 해서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새로운 청년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점이에요. 남은 하반기는 찾아가는, 회원을 만나는 활동을 해보고자 해요.

윤유진 >>

안산새사회연대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윤희 대표의 이야기에 공감이 많이 되는데 코로나 이후 변화된 것은 상반기 계획했던 사업들을 다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연간 계획했던 일들을 다하지 못한 점이 아쉬워요. 일다의 경우 6.15 기념 행사를 크게 해요. 특히 올해 20주년인데 그것을 못하고 지나가서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고 알리기는 해야 되니 온라인으로 해보고 그때그때 계획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보니 힘 있게 하지 못하는 면이 큰 것 같아요.

또 회원모임, 동아리모임 등이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인데 회원들 얼굴도 못 보고, 모임을 자제하라고 하니. 우리는 모임을 지속적으로 해서 참여를 독려해야 하는 입장인데 못하고 있는. 특히 초반에는 코로나 확산의 시발점에 대해 지탄이 심해서 더 어려웠어요. 조금 상황이 나아져 추진하려 해도 사람에 따라 느끼는 강도가 달라 입장이 다르니 나는 이런 상황이라 참여가 어렵다 하면 어떻게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안전, 위험 문제와 직결되다 보니 더 이상 설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컸습니다.

사람들과 계속 연결되고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어렵고 특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강연 프로그램을 했는데 예전 같으면 뒤풀이를 항상 하면서 더 가까워졌는데 마스크를 벗고 먹는다는 것이 두려워서인지 더 가까워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사람, 알던 사람들과도 더 가까워지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박건희 >>

상록수보건소 소장입니다.

보건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시민이 많아서 아르바이트 할 때 보건증 끊으러 오고, 아이들 키우면 예방접종 정도 하는 곳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건소가 유명해져서 그것이 좀 차이가 있고요(웃음).



주민협의회나 단체들 만날 때 함께 고민하고 싶은 부분은 코로나가 잘 보면 귀신같이 취약계층만 잘 공격해요. 초반은 정신병원, 요양병원이었고. 다행히 어린이 경우 직접 공격하진 않는데 학교를 못가면서 돌봄의 역할을 못하게 된 상황이죠. 점심도 주고 친구도 만나고 했는데. 학원을 가든 뭘 하든 그럼 상관없는데 돌봄을 잘 못 받는 아이들은 집에서 핸드폰만 보고 컴퓨터만 하고. 돌봄에 취약해지는 계층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린이나 장애인, 독거노인 등.

자살률도 20-30대 여성, 40-50남성 늘고 있는데 주로 경제상황이랑 관련 있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 확진자 한 명 접촉자 한 명 관리하느라 동선 잡고 하느라 정신없는데 코로나 잡다가 힘들어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활동하시



는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 얘기라 인용하기 좀 그렇지만 메르켈이 코로나 초기 대응 때 사회적 연대와 돌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신천지, 이태원 동성애자, 태극기 부대 등 개인적인 의견은 다르지만 차별과 혐오와 배제 이런 식으로 일부 흘러가서 안타까웠어요. 국가적 차원 문제기도 하지만 지역 사회에서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김영경 >>

안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입니다.

코로나 이후 달라진 점은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이 많이 달라졌어요. 약속

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소비패턴이 많이 달라졌었어요. 나갈 수 없는데 아프면 지압기를 산다거나, 실제 병원을 못가서 안마기를 사드리기도 하고 뭔가 집 생활이 많아지니 책을 많이 사게 되거나 온라인 플랫폼 결제를 많이 하게 돼요.

디지털 정보 격차를 많이 느꼈던 게 엄마가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 물어보는데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사람이 없고 기계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밥도 못 먹고 그냥 왔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속상했어요. 연휴에도 식당을 갔는데 방문기록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 QR코드(2차원 바코드)로 해야 된다고 해서 핸드폰 없는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요즘 줌 회의도 하고, 수업도 온라인으로 보고 하는데 만약 내가 학생인데 노트북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들었어요. 디지털 격차를 많이 느꼈어요.

황슬기 >>

안산YWCA 활동가입니다.

코로나가 가장 달라진 점은 지금 일하는 곳에서 7개월 정도 일했는데 그 전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 개발자로 일했어요. 그 회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유통업을 따로 하다가 손 소독제가 대박 나면서 일이 많아지니까 주력으로 하던 회사를 놓고 보조 업무였던 그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서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강제 이직하게 됐어요.

그래서 연차가 적고 그 사람들 기준에서 능력이 부족한 인력들이 먼저 사라지게 되는데 그게 저였고 우연한 기회에 원래 일하기도 했던 안산 YWCA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가 저에게 큰 타격을 줬어요.

그리고 근무형태도 영향을 줬어요. 전 회사에서도 재택근무를 오래했었어요. 이직해서도 재택근무를 일주일 정도 했었던거 같은데. 저희 나이대에는 취업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친구들도 보면 항공업계나 여행사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급으로 일하고 그 이후에는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업계들이 코로나로 인해 흥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안 좋은 회사도 많다고 느꼈습니다.

진지혜 >>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간사입니다.

코로나 전과 후 업무적으로 가장 변화된 것을 꼽자면 오프라인 좋아하고 아날로그 방식 좋아하는 80년대 생이거든요(웃음). 미디어 쪽은 즐기긴 해도 직접 해보려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코로나 이후 사업을 해야 되니 유튜브, 구글, 줌 등 평소 접하지 않을 것 같았던 플랫폼들을 섭렵하면서 만지고 해야 해요. 이제 사업하면 기본적으로 촬영, 기록, 업로드 등이 제 활동의 5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사업을 원래는 면 대면으로 한방에 해버리고 결과보고서 쓰고 끝냈거든요. 지금은 사전 준비



도 해야 되고, 온라인으로 알리는 활동해야 되니 뉴스레터 등을 만드는데 그런 업무적 환경이 많이 변화된 부분 같아요. 지난 번 여러분들이 많이 참가해주신 환경 한마당도 그렇고요.

개인적인 삶으로는 코로나가 터지고 가전제품 두 개를 들었는데 건조기와 식기세척기를 구입했거

든요. 그전에는 몸이 힘들어도 큰 돈 들어서 기계를 사기보다 환경, 소비 관점에서 먼저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 다 없어지고 설거지도 너무 많이 하고 양육, 가사노동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힘드니 엘보우도 걸렸어요. 일단 코로나라는 불안 앞에서 샀어요. 핸드폰도 아이들 늦게 사주자 하는 기준이 학교에서 화상교육 한다고 압박하니 지키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 기준이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코로나가 항상 상위에 있고 나의 가치는 치워지고 희석되는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정주호 >>

더좋은공동체 사무국장입니다.

저희는 마을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체 영역에서 마을 공동체라는게 주민들과 관계하고 마을일을 하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영역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활동들이 위축되기도 했지만 마을 안에서 주민들이 코로나를 대응하는 사례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마을공동체에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기부한다거나, 마을방역을 한다든가, 마을축제는 아니지만 소규모형태 행사로 전화해서 그런 방식으로 찾아가는 것 같고. 주로 도심에서는 여성분들이 활동해요.

농촌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이 활동해요. 이번에 비대면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는데 어르신들이 어떻게 참여하실지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적응 잘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 못지않게 잘 하시고,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생각보다 비대면 사회에 적응을 잘 하고 있다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할 것들, 비대면 콘텐츠라든지. 핸드폰으로 하는 화상통화를 넘어서, 얼마전 환경의 날 행사도 성공적으로 진행했지만 스스로 기술들을 익혀가고 역량을 키워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유진 >>

민주노총 금속노조 시흥안산지역지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너무 좋거든요(웃음). 저녁이 있는 삶,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보장되는 삶을 살고 있어서 코로나에 적응하는 삶이에요. 활동기간이 너무 길었고 아이도 어리고 그 동안 돌봄을 병행하며 지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일과 주말에 행사가 없는 삶이 아이가 학교 안가는 거 빼고는 모든 게 만족스런 상황입니다.

개인으로는 그렇다는거고 제조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4월부터 코로나 영향이 오기 시작했어요. 노동 현장에서는 일이 없고, 휴업을 많이 하게 되고, 노동조합 없는 현장 상담하는데 권고사직 상담이 많이 들어왔어요. 회사를 25년을 다녔는데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 하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화장실에서 울면서 전화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조업에서는 한차례 후폭풍이 몰려왔고, 노동조합 있는 회사들은 그나마 고용이 안정적이죠, 4~6월 휴업 이어가다 현재는 대부분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 온 상황이에요. 하반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워낙 우리나라가 방역관리 잘 되고, 해외 물량이 들어오고 이러다보니 제가 있는 금속 노조 사업장들은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기후위기와 맞물려있는데 어떻게 이 사안을 노동조합에서 화두로 내걸고 과잉생산을 멈추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방향에서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청년활동가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활동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려



고 하는지 모르겠어요(웃음) 지금은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 모두가 지금은 멈추고 최소한의 생산만 하고, 회의 하다보면 종이도 엄청 쓰거든요. 나눠줘도 보지도 않아요. 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별로 없어요. 사업을 할거냐, 말거냐 하는 회의는 매일 있어서요. 사업은 없는데 회의는 매일 있어요(웃음). 이럴 때 우리도 그냥 멈추고 주변 사람들 보고 소소하게 지내다가 지구환경이 나아지면 열심히 하면 어떨까. 초기에 걱정했던 것은 사업 못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 몰리면 어떡하지, 하는 압박감이 너무 컸어요. 그런데 지금 길어지면서 압박감에서 좀 해방된 것 같아요. 마음의 부담을 덜었다고 해야 되나.

현장 노동자들은 비대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핸드폰이 익숙치 않거나 데이터 부담에 선뜻 이렇게 해보자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

아서, 사실 현장 노동자들은 대면방식 아닌 다른 방식 찾는 게 어려워서 고민은 많은데 선뜻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앞으로 새로운 방식들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는 생산현장도 그렇고 우리 활동도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웃음).

배현정 >>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입니다.

변화라기보다 새롭게 생기게 된 고민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코로나로 인해 사회가 멈춰있고 천천히 가지만 제가 하고 있는 환경운동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생산이 늘어가면서 다른 오염이 늘어가고 있고, 행정도 열일을 하고 있고 조바심도 나고 그런데 우리만 멈춰있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고.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우리는 시민운동하는 활동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현장성이 중요하고 그것이 차별성이라 생각해요. 여러 정책을 만들고 요구하는 활동이 현장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만날 수 없으니 저희 활동 방식도 플랫폼화(컴퓨터시스템 환경을 구축해 개방하여 누구나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변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역량을 강화해야 하나. 이제 디지털 역량도 강화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누가 우리에게 투자해주는 것도 아니고 소수 인원이 일하는 그룹 안에서

활동가들이 감당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자조노력으로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죠. 코로나가 짧게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대책 필요한데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무기력함, 코로나 블루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은진 >>

안산민예총 사무국장입니다.

실제 예술인 대부분은 먹고사는 문제인데, 당장 여기 극단도 몇 달째 작업을 못 하는 상태예요. 극장 들어가서 세팅하다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이 동네에 풍물패와 다른 극단도 있는데 7-8개월씩 월세가 밀리고 있는 상태가 반복되고 있어요. 내일까지 신청을 하면 예술인 재난지원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400명분의 예산이 준비되어 있는데 400명도 신청을 못 했다고 해요. 그 말은 행정이 들이미는 조건에 맞는 예술인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괴로운 상황이에요.

지금 10월이니까 한참 바빠야 하는 시기인데 한가하잖아요. 물론 비대면 예술장르도 있죠. 문학이나 영화 같은 것은 대면하지 않고도 예술작품으로 대중들을 만날 수 있지만 연극 같은 경우는 시민들을 만나서 전달할 수밖에 없는 장르인데 시민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참 괴롭고 어떤 팀은 돈 안 받아도 좋으니 공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



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김해정 >>

안산지속협 사무국장

코로나로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마스크 쓰면서 폐활량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또 하나는 고용안정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실감하는 중이에요. 회원회비든 시민의 세금이든 월급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정시퇴근 하는 게 더 피곤해요. 제가 딸이 대안고등학생은 기숙사 생활하고 대학생은 지방에 방을 얻어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둘 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방에 있었던 큰 아이는 등록금도 내고 월세도

따박따박 내는데 우리집에서 지내면서 온라인 수업 듣고 밥 먹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시세끼를 해서 먹이는 것이 엄청 고민이고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컸으니까 애들 다 내보내고 좁은 집으로 옮겼는데 다 함께 사니까 작은 공간에서 엄청 스트레스도 받고 있고요, 얼마전에는 도저히 참다못해 5일간 추석 때 같이 있다보니까 다 나가라고 소리 한번 지르고(웃음). 이런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친정어머니는 집에만 있어서 노모 돌봄의 현실이 걱정이예요. 시어머니는 코로나로 인해 면회가 안돼 두 달만에 의료사협 요양원에 보러 갔는데 우울증과 더불어 자식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 전에 정정하셨는데 우울증과 더불어 치매가 확 떨어지면서 심해진 거죠. 근데 이런 고민은 또 왜 나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돌봄과 돌봄노동에 대해 여성들의 역할이 집중되면서 고민이 또 됩니다.

일에 대한 부분은 지속협도 시 예산을 받다보니 좋은 점은 4-5명씩 모여서 깊게 이야기하는 집담회 방식을 통해 뭔가 추억을 나누면서 향후의 방향에 대해 질적으로 높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었어요.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고, 인원을 모아야 하는 숫자의 크기에 스트레스는 받는데 소수여서 그 부분은 좀 덜 받아서 나쁘지는 않고 좋았어요. 두 번째는 sns 통해서 진행한 환경한마당은 짧은 시간 준비 돼 일방적인 소통밖

에 할 수 없어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좀 궁금하고 공허하기도 했어요. 쌍방소통 보다는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보고 끝내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됐고요.

김송미 >>

안산 새사회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말들을 앞에서 많이 해 주셔서 가지고 잠시 후에 사회적 거리와 광장, 이야기 할 때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경 >>

안산청년행동 더함 사무국장입니다.

개인적인 점을 말하자면 주위 친구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쉬다가 일을 시작하려 했는데 현장일을 하던 친구인데 찾아보면 아웃소싱, 건설현장 쪽도 자리가 별로 없고 다시 시작하려는 친구인데 일 자리가 불안정하고 더 안좋은 일자리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한 달 넘게 찾고 있어요. 예전에는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힘든 조건에 놓여있습니다. 초콜릿 공장에서 일하던 친구도 6개월간 무급휴가를 겪고 있어요.

사회자 >>

앞 이야기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광장’, 두 가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장 자체도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갈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시대의 소통과 공감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을 하지 말자, 왜 물리적 거리두기가 사회적 거리두기냐, 마음은 거리두기를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환기하는 차원에서 OX퀴즈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마음의 거리도 멀어졌다.” 하면 ○, 아니면 X로 답해 주세요.

박건희 >> - △

더 멀어진 경우도 있고 더 가까워진 경우도. 있는데 그동안 참 쓸데없이 사람들을 많이 만났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웃음).

김해정 >> - X

저는 오히려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대해 만나고 싶다는 욕망이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들면서 관계에 대해 자주 많이 만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일적으로는 어느 순간 몇 개월 안

만나니까 보고 싶어서 그냥 얼굴 보러왔어, 하는 소중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어요.

진유진 >> - X

저희는 같이 일하니까 매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집회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요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그 부분이 막혀있는 거죠. 그것 외는 일상에서 따로 달라진 것이 크게 없어요. 매일 만나고 일하고 있다보니.

대부분 취소했지만 드문드문 했어요. 미조직 사업으로 선전물을 나눠줬는데 생각보다 시민들이 은근히 잘 받더라고요.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거죠. 예전에는 관심도 안 갖는 사람들이 상황이 어려우면서 알고 싶어 받는 면도 있고요, 나눠주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더 관심을 갖는 것 같기도 해요(웃음). 집회는 어려우니 한국와이퍼 등 고용문제가 불거진 곳에서는 알려야 하는 데 못 알리니 그게 어렵죠. 대부분은 현장 안에서만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와이퍼 경우도 모여서 하긴 어려우니 현장의 자기 자리에서 사회자만 앞에 두고 하는 방식을 처음 시도해봤었는데. 저희는 온라인 방식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앞으로도 1인 시위 방식 등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회자 >>

비대면으로 사업해 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조금 나눠봤으

면 좋겠습니다.

김해정 >>

온라인 환경한마당

저희는 환경한마당을 했습니다. 처음 하는 시도라 어떻게 될거다, 하는 상상이 안 돼서 기획 자체에 더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만나서 모아내는 것이 아니라 줌을 통해서 200명이 모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한 시간이지만 줌을 통해 모인 이 200명의 사람들에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하여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어요. 할 수 있을까 돈도 시간도 품도 많이 들었는데 좀 아쉬운 건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행사는 잘 되었다고 우리끼리 박수쳤지만 줌에 들어온 사람들과 쌍방소통이 잘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기후위기라는 중요한 이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좀 더 작게 작게 소통하는 것이 더 맞나, 하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진지혜 >>

온라인 환경한마당

환경한마당에 대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온라인 방식 자체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사업기획할 때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예측이 없

어서 불안함이 컸죠. 줌으로 생방을 하다 보니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수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시청을 하는 내내 어떡하지, 하면서 조마조마했죠(웃음).

반면 온라인으로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 저는 요가도 하고 맥주파티도 하는데 하다보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상황과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실무적으로는 해맸지만, 발상의 전환이어서 이 기회를 활용해서 활동방식을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김송미 >>

글쓰기모임 / 안산촛불광장

저는 모임으로는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1:1만남으로는 여러 개 하고 있어요. 20살 친구들이 코로나를 더 무서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부모님도 못 나가게 하기도 하고, 자기가 학교에 돌아갔을 때 전파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도 있어서 밖을 잘 안나가요.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밴드라는 그룹에 들어가서 매일 글쓰기를 해 봤어요. 못 만났을 때는 글을 계속 쓰고 만났을 때는 글을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일상적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자기 일상을 남기고 이후 대면했더니 대

면과 비대면이 겹쳐지면서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대면과 비대면을 잘 활용하면 새로운 활동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는 안산촛불광장을 진행하는데 올해는 거리에서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실내 온라인 촛불로 진행하고 있어요. 거리에서도 좋았지만 온라인으로 하니 좀 더 깊은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예전에는 5분 발언 정도로 끝났던 게 토크쇼 형식으로 한사람 당 20분정도를 심도 있게 이야기 하니까 되게 좋았어요. 온라인방식도 새로운 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패널만 있고 듣는 분이 없으니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촛불에서도 패널이 있고 들어주는 분이 있을 때 더 다가오는 게 큰 것 같아요.

배현정 >>

줌 회의 / 피켓팅 캠페인

저도 동시에 느끼고 있는데 줌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환경운동연합에서 전국 회의를 하는데 줌으로 하니 훨씬 참여율이 높아요. 원래 대전 쪽 모였는데 원래 여러군데서 와야되니까. 온라인으로 하니 참여율이 높고. 쓸데없는 얘기를 안해요(웃음). 집중해서 얘기하는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동지애가 있다보니 조금만 이야기해도 깊이 이야기되고 잘 끝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많은 다른 회의를 해봤는데 그냥 할 말만 하고 논의가 더 깊게 되지 않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친분이 있거나 지지그룹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아니니 잘 안되었던 것 같아요. 만나지 않으니 비언어적인 소통이 잘 안되니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요.

기후위기에서 했던 피켓팅 캠페인 사례는 서명, 유인물 등은 쌍방이어서 시민들의 호응을 바로 가늠하잖아요. 그런데 쌍방이 아닌 일방인 피켓팅만 하니까 얼마나 전달됐는지 판단이 안되더라고요. 만나냐, 안 만나냐로 소통이 채워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비대면 영역을 채울 것인지 고민이 되는 면이 있어요. 환경영역은 할 일이 더 많아진 점이 있는데 소통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더라고요.

정은진 >>

온라인 공연 제작 등

저희가 BTS같은 아이돌이 아닌 이상 저희가 만든 온라인 영상을 그렇게 많이 보시지 않아요. 행정에선 편하니까 온라인 콘텐츠 제작하라는데 고민되죠. 영상작업이라는 후작업이 또 들어가서 예산도 더 들어가고. 예술은 소통이 더욱 중요해서 온라인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많죠. 만약 콘텐츠를 제작해서 뿌릴 경우 피드백을 확인해야 되는데 누군가 클릭하거나 찾아주거나 보지 않으면 끝인 거예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먹고살아야 하니까 온라인 콘텐츠 제작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앞으로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다른 방식을 고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자 >>

우리가 거리로 나가는 이유는 특정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보다는 애써서 정보를 찾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더 큰데 그런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광장'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면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광장이란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황슬기 >>

요즘 핫한 영상이 있어요. 한국관광공사가 만든 대한민국 홍보영상이 있는데 관련 브랜드 마케팅 팀장 인터뷰를 봤는데 특이한 한국을 말하고

싶었대요. 판소리랑 춤을 추는데. 돈이 많이 들고 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저예산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물론 조회수나 알려질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방법을 시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김송미 >>

거리로 나가는 것을 그래도 멈추지 않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흑인이 차별받고 거리로 나가 싸웠던 것은 코로나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내 삶이 더 힘들다는 절박감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온라인과 더불어 오프라인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광장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실내에서 맨날 카드뉴스 만들고, 각종 전파를 하는데 그것을 누가 얼마나 볼까, 하는 생각이 들죠. 저희는 통일 운동 단체인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통일 얘기 하는 것이 우스운 상황이 된 것이 화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과 더불어 거리로 뛰쳐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힘든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과 같이 외쳐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윤유진 >>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온라인 방식이 행정에서 만능인 것처럼 홍보를 하는데 불만이 많거든요. 안산에 청년협의체가 있고 40명의 구성원이 있



는데 코로나 이후 온라인으로라도 해야지 하면서 전환해서 줌으로 두세 번 했는데 의논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많이 보였어요. 준비하는 입장은 뭔가 많이 하는데 접속자는 오프라인 모임 때보다 많은데 정작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거죠. 서로 환영해주고 하는 부분은 되는데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하면 침묵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오프라인에서는 침묵하는 분이 있어도 어떻게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온라인이다 보니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오프라인은 소그룹으로 나누든 어떻게든 했는데 줌은 진행자만 얘기하고 발언기회를 얻는 것도 어렵고 질문을 해서 뭔가 정보를 얻고 싶어도 소통이 안 되고 물어본다 해도 내 의도가 정확히 전달이 잘 안되어 소통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고민과 관심사의 깊이가 높고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논의를 끌어내기가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비언어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저희 단체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활용하는 부분은 보완하는 것이 됐어요. 대체가 아닌 보완이라고 봐요.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할 수는 있지만 심도 깊은 대화, 논의, 논쟁이나 토론은 어렵더라고요. 불특정 다수를 만나거나 이런 부분은 온라인이라 해도 다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오프라인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더 절감하는 것 같아요.

사회자 >>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실버스를 타고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와 관련된 기록물과 사참위(사회적 참사조사위원회) 활동 연장하는 안을 가지고 국회에 청원하는 염원을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10만명 서명을 받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촛불처럼 대규모 모일 수는 없지만 무언가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배현정 >>

온라인의 장점은 양질 콘텐츠를 양산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온오프다 보는 사람만 보는 비대칭은 있잖아요. 그런 면을 채우는 새로운 방식

이 필요한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견제 영역에서는 오프라인의 힘이 훨씬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단체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게 조례 만들어지는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유명무실하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힘을 행사해서 따낸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이기 때문에 위원회 못 열어요, 하면서 1년이 지나고 있는 거죠. 아주 작은 부분임에도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집회 등 큰 실력행사를 하면 이런 행정들이 움직일텐데 없다보니까 안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행정이 안 움직이는 데 공적인 정당성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 영역에서는 소규모로 자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사성으로 사람이 많이 오면 좋겠지만 소수가 모여도 내용을 더 담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저희도 못하다가 고민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박희경 >>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시민 활동가들은 잘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는 강박증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게 맞는가보다고 생각한 게 그렇게 안할 수 있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왜 자기를 괴롭히며 못하고 있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웃음).

아플 때는 좀 쉬어야 하잖아요. 예전에는 아프면 일을 안 하고 쉬었대요.

너무 과하게 몸을 힘들게 하지 않았는가, 하면서요. 지금 지구가 그러고 있잖아요. 너무 과하게 개발하고 과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지구도 좀 쉬어야 되니 편하게 내년까지 천천히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좋겠어요. 사실 비대면 회의해보면 잘 안되고 하는 사람만 피곤하고, 할 수 없으니 까 좀 하고는 있지만 천천히 몸을 좀 보호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진유진 >>

비대면 조건이 어려워서 활동을 고민하고 있는데 창조적 생각이 나오진 않고, 저희는 코로나 겪으면서 했던 게 원래는 공단 들어가서 선전물 나눠주든 방식에서 공단 벽에 다 붙이고 다녔어요. 코로나 고용위기 등 상담해준다 해서 하니 연락이 오긴 오더라구요. 한 거랑 안 한거랑 실제 차이가 있거든요. 붙이기라도 하면 상담전화라도 한통 오는데 그거라도 안 하면 안 오더라구요..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그런 방식이 일상화되어 있다보니까 하고 있어요.

선전사업을 소규모로 해요. 두세 명씩 역 나눠서 동시다발로 진행했던 것 같고. 지금은 집회신고 자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경기도도 안산시도 행정지침이 있어가지고 현수막도 걸면 다 떼 버리는 거예요. 집회신고 물품이어서 떼면 안되는데 지금은 집회자체가 안되니까 떼 버리는 거죠. 집회가 안 되면 그런 선전물이라도 우리가 달아야지 하는 답답함이 있어요. 이번에 민주노총에서 시에 요청해서 선전물이나 현수막 같은 경우 할 수 있게 한 것 같은데 과하게는 하지 말고 그럼에도 놓치고 가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준비 철저히 해서 조금씩 활동하는, 오프라인 시민접촉 방식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어차피 코로나와 살아간다면 그런 방식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은진 >>

저는 되게 동의가 되는 게 기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든 온라인에서 소통이 가능해요. 그런데 관계없는 경우 매우 감각적으로 눈을 끌 수 있는 콘텐츠 아니면 온라인에서 대중 만나기 쉽지 않아요. 4월에 했던 세월호 온라인 기억행동챌린지처럼 착한 사람들이 참여해주시는 것이 아니면요. 실제로 유럽과 남미에서 수 백명의 공연관련 기술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공연장비를 하나씩 들고 나와서 시위한 일이 있었어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광장에 쭈욱 늘어서서 실업상태에 있는 공연관계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방역을 잘 지킬 수 있는 방식을 잘 준비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이죠. 물론 쉬고 싶지만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항상 시민들과 나누어야 할 이슈들이 있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시민들을 만날 있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자 >>

우선은 많은 분들이 온, 오프라인은 서로 대립이 아니라 보완이고 각각이 갖는 기능이 있다는 말에 공감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한 방역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

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방역과 안전을 잘 준수하면서 어떻게 우리 활동을 지속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마무리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야기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간략하게 소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유진 >>

요즘은 기침하면 엄청 눈치 보여요. 호흡기질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시기를 지나며 알게 모르게 트라우마 갖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감이라도 한번 번지면 서로가 불안감에 떨지 않을까. 과정에 스스로가 극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애들 봐도 기침만 해도 코로나 코로나 해요. 후대에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 시대를 다 같이 극복했으면 해요.

김해정 >>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요.

코로나가 기후위기 문제다, 환경의 문제다, 하면서도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견제는 약해지는 것 아닌가 하고 힘을 모아야 되고 액션을 해야 하는 사이에서 이런 자리가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누가 안산의 환경이나 행정을 더 고민할까 그걸 또 어느 영역에서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가치적인 부분에 방

점을 두고 향후에 더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송미 >>

코로나 시대, 몸은 몸은 편안하고 마음은 불편했는데 이 자리를 통해 마음이 편해졌어요.

김순천 >>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인데요. 재밌었어요. 사람은 역시 만나야 돼요. 서로 소통해야 되고요. 이야기를 함께 나누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주시고 제가 고민했던 부분도 해소되는 측면도 있었어요.

조금 아쉬운 게 각각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을 하시는 단체들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약간은 심도 있게 나눴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어떤 방향으로 활동하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업이고 인간이 없으면 지구가 아주 편할 것 같은데 그런 지점에 있어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눴으면 좋았겠다, 라는 아쉬운 지점이 있긴 한데 못 만나다가 만나니 갈증이 해소됩니다.

윤유진 >>

활동가 편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공통으로 느꼈겠지만 답을 잘 모



르겠잖아요. 답이 아직 없지만 각각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하고 고민에 대해 생각 못했던 부분을 듣기도 하고 해서 공감했어요, 다른 주제도 좋았지만 하고 있는 고민을 나누는 자리다 보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박건희 >>

부탁을 드리자면 오프라인에서도 회의가 잘 될 때 안 될 때 있고, 결국은 기술적인 퍼실리테이터 기법과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언택트 시대 활동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들은 이런 시대에 맞춰 온라인 회의 진행하는 법이라든지 줌 기술, 동영상 제작 등 전문적 교육을 하는데 시민사회도 그런 부분 많아진다면 자체적으로 하긴 어려울 것 같고 경기도나 안산시 지원센터에 요구해서 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놀란 점 하나는 온라인 즉흥 연극을 관람했어요. 줌으로 한다고 해서 설마 했는데 공감도 되고 감동도 있고 그랬는데. 이것이 한 번에 됐을거란 생각은 안 해요. 많은 연습을 통해서 가능 했을 것이에요. 이런 온라인에 대한 시민사회 역량을 어떻게든 키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안전하게 만나는 것 계속하면 좋겠다 하잖아요. 방역당국에서는 안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얘기 못하지만 시민사회가 안전하게 만날 수 있다고 적극 얘기해야 한다고 봐요. 먼저 목소리 내면 좋겠어요. 정신 건강은 살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웃음).

[시범자료] 안산시민 토크

코로나 시대 삶과 노동

일시 : 2020년 5월 28일(목) 18:30

장소 : 일동 마실

사회자 : 최한솔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무사)

이야기참가자 :

김태희 (안산시의원.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희정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센터장)

이혜진 (18년차 학원강사, 7살 남자아이 양육)

이슬기 (안산여성노동자회 활동가)

강순애 (가정관리사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가정관리사)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대표, 통역)

미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원미 (디자인스튜디오 운영, 청년 창업)

사회자 >>

예측하기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과 노동이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멈출 것 같았지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시대,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의 삶과 노동에 대해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받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만큼은 조금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기 나와 주신 모든 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하루일과를 보내시는지요? (코로나 이전)

강순애 >>

육아를 하게 되면서 일을 그만 뒀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다시 일을 시작하려 했더니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여자를, 사회에서 써주지 않던데요. 일자리는 원래 부족한 거니까 하는 생각에 주변의 제안을 받아 직업 교육을 받다가 적성에 맞는 일을 찾게 됐죠.

원래 청소 같은 집안일을 좋아했어요. 이 일을 하면서 누군가의 집을 깨끗이 만들고 나올 때, 특히 고객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 받았을 때 기

분이 너무너무 좋죠. 저는 이렇게 가정관리사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사노동자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을 하나면, 아침에 출근하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작업할 때 입는 옷으로 갈아입어요. 옷 세탁을 하고, 삶는 빨래도 가끔 해요. 설거지, 주방이나 화장실 청소 등 전체적인 가사 일을 다 한다고 보면 되요.

보통은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나눠서 일하는데 간혹 고객에 따라 식사를 대접하는 분도 있어요. 고객들 대부분은 맞벌이가 많은데, 집에 있으면서도 서비스 받는 경우도 요즘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감시 아닌 감시를 하기도 하죠.

이혜진 >>

일하면서 아이 돌봄을 함께 하고 있어요. 아침 8시쯤 일어나서 밥해서 아이 먹이고 9시쯤 유치원 보낸 후 잠깐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잠깐 자기개발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오후에 할 수업 준비를 하기도 해요.

오후 3시까지 학원으로 출근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고객관리 일도 해요. 그리고 야간에 과외를 하는 날도 있어요. 이렇게 일하고 늦은 시간 퇴근해서 친정에서 아이를 데려와요. 그리고는 또 아이 케어하고 못한 집안일을 해요. 11시가 넘어야 잠이 드는데 이렇게 하루가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원미 >>

그림을 공부했고 현재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디자인 스튜디오를 창업해 운영하고 있어요. 소규모 인원으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 디자이너들이 기획과 제작까지 모두 맡아 밀도 있는 작업을 하는 공간이에요.

하루 일과는 심플해요.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인데 프리랜서와 큰 차이 없더라고요. 오전 10시쯤 출근해서 하루 12시간 정도는 일하는 것 같아요. 그 때 그 때 진행되는 일에 맞춰서 주로 하루 일과를 살아간다고 보면 돼요.

미나 >>

인천에 있는 상추 재배 농장에서 일했어요. 매일 10시간 정도는 일했는데 한 달에 이틀 정도 밖에 못 쉬었어요. 하우스 시설에 숙소를 만들어 지내며 가끔 나가서 2주 정도 분량의 식재료 장을 봐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외출에 통제가 심해졌죠. 원래도 노동시간이 길고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어서 힘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지도 않아 노동 강도는 더 세지고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에 통제까지 하는 바람에 너무 힘들었어요.

4년 10개월 정도 일해서 고용 허가 기간이 끝나가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임신을 했는데 병원 가는 것도 자유롭지 못해 결국 그만 둘 수밖에

없었어요.

김태희 >>

아침 6시 일어나서 자기 시간을 가져요. 필요한 자료를 읽기도 하고 보고 싶던 책을 읽기도 해요. 그리고 오전 9시에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킵니다. 의회는 보통 10시에 회의가 있어서 제가 아이를 보낸 후 출근해요.

시의회는 1년 중 약 100일 정도 회의기간이에요. 그 외에는 시의원으로서 사람들을 만나죠. 민원인을 만나기도 하고, 누군가와 점심 약속이 있기도 하고, 각종 다양한 회의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저녁에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들에 참가하다 저녁 8~9시는 넘어야 귀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박희정 >>

저도 일과 가사를 병행하고 있어요. 6시 반에서 7시 사이 쯤 일어나는데 음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웃음) 일어나면 먼저 아이들 밥 챙기느라 정신없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9시까지 출근해요.

출근해서 하루 일과는 상담이나 교육도 하고, 행사에도 참가하고 회의도 하는 등 일하다 저녁 일정이 특별히 없어도 집에 가면 7시 40분은 되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아이들 저녁 챙기다보면 전쟁 같은 저녁 시간을 보내게 되죠. 9시 쯤 아이들 과제 점검하다 보면 10시 반 훌쩍 넘어가고

하루가 다 가요.

사회자 >>

코로나 이후에 삶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원미 >>

코로나 이후 자기 개발 시간이 늘었어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행사, 공연 등 예술 분야의 일이 막혀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현실이죠.

코로나 이후 10분의 1 정도로 일이 줄었죠. 그러다보니 투잡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는데 이미 주변을 보니 투잡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코로나 이전 사업을 준비했다가 본의 아니게 창업 시기가 코로나와 겹쳐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고요.

예술이나 예술인들을 대하는 보통의 시각 중에 오해가 있어요. 예술은 노동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으로 즐기며 돈도 번다고 보는 시각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는 부분이 문화예술 영역이다 보니 더 일이 줄어들고 있어서 힘든 점이 많아요.

이슬기 >>

안산여성노동자회에서 상담했던 20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최근 고용동향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 3,4월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특히 20대 여성들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예년에 비교하며 취업도 잘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구요. 그렇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이 사회에 잘 전달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공항 VIP 라운지에서 파견 되서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던 20대 여성 노동자 A씨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해요. A씨는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4년마다 체결되는 계약 연장 여부에 따라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위험에 놓인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예요. 간접고용 형식 노동자이기 때문에 임금, 인사, 채용 등 전반적인 관리는 원청의 승인 하에 모든 것이 이뤄졌고 어느 것 하나 원청 승인 없이 해결되지 않은 조건에다 항상 부족한 일손으로 힘들게 일하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공항은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어수선했고 결국 A씨가 일하던 라운지에서 2명의 인건비를 감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같이 일하던 노동자들끼리 돌아가며 무급휴가를 쓰는 방식으로 버티고, 쉬는 날에도 나와 서로 일손도 도우며 언젠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버텼지만 결국 돌아온 건 단체 카톡방을 통한 해고통지였죠.

동료들 사이에서 중간관리자 역할도 해오던 A씨 입장에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었다고 해요. 동료들과 함께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찾아보는 등 노력했으나 결국 포기했어요. 당장 생계유지가 너무 답답했다

고 하네요.

미나 >>

코로나 이후 나가면 못 들어오게 하고 병원도 못 가고 이런 상황에서 그만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어요. 남아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더욱 심각해요.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이동을 통제받고 있고 너무나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하우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자유가 없어 너무 답답했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CCTV도 생겨서 숙소 주변과 나가는 길 모두를 통제했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마치 도둑 취급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전 4월에 퇴직해서 쉼터에서 머물고 있어요.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와서 상담 받는 것을 보는데 저처럼 농가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많더라구요. 어떤 노동자 한 분은 산부인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병원을 계속 가겠다고 하니 고용주가 통제하다 결국 부당하게 해고했어요. 어찌면 코로나는 외국인 노동자 해고를 위한 좋은 핑계거리가 되기도 한 것 같아요. 일이 줄고 경기가 안 좋다보니 외국인 노동자부터 무작정 해고하는.

뒤늦게 알았지만 우리는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고,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임금 체불이 3천만 원 정도 되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결국 비자 기간 끝나고 돌아가면 끝이지 하고 대부분 고용주들은 생각하

고 넘기는 것 같아요.

타지에서 코로나를 겪은 느낌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도 그랬어요. 이주노동자들은 시스템 상 고용센터에 등록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되는 현실이에요. 그런 여건을 악용하는 고용주들이 있어요.

강순애 >>

코로나 이후 가장 나에게 온 큰일은, 고등학생이 된 딸이 있는데 입학식도 못하고 집에 있어요. 이 상황이 가장 크게 다가왔어요. 학교에 가야 할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일터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고객은 “저희 집만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어디 다니시는지 공개해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일하러 가면 가정관리사 핸드폰을 가져가 소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집은 수도꼭지 직접 올려주면서 손부터 씻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집에 병균 하나라도 갖고 오지 마라 하는 의미인거죠.

더 큰 문제는 실제 일이 줄어들었어요. 아이가 있으니 오지마라, 어르신이 있으니 오지마라 등 실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염려되는 것은 우리도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도 출근할 때 손 깨끗하게 씻고 가고, 위생관리도 더욱 철저히 하는데 고객들 입장에서 조금 과민하게 반응하실 때가 있죠. 내가 일하러 출근한 곳에서 '저 사람이 병균 옮기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을 눈초리로 본다면 슬프죠. 사실 일하러 안 나가고 싶죠.

박희정 >>

면세점에서 근무하시던 용역 노동자 상담이 들어왔었어요. 아시겠지만 용역업체 통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해고에 있어서 가장 먼저이거든요. 일단 한 명을 자르고 나머지 노동자들에게는 무급휴직을 강요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요구했더니 사장이 우리는 신청자격이 안 된다 하는 핑계를 대면서 까다로운 절차를 해보고자 노력하지는 않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해고를 쉽게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더 황당한 사업장은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드니 무급으로 일할 것을 요구한 곳이 있었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사례인데 일부 그런 사업주들이 있고, 또 이런 상황을 잘 몰라서 당하는 억울한 노동자가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형마트들이 직격탄을 받았는데요. 마트 내에 하청업체 직원들을 원청 관리자들이 엄청나게 압박했다고 해요. 매출이 떨어진 것을 노동자 탓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노동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기도 해요. 이 사례가 산재가 가능할 것 같은지 상담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또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를 안가고 있는 상황인데 방과 후 특기적성 교사, 학원 강사들의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센터에서 제보 받았는데 어느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일하는 노동자에게 학교에 아이들이 안 나오니 사립인 학교에서 무급휴직 통보를 한 사례가 있었어요. 상담을 통해 학교가 휴업급여를 미지급 한 것에 대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가봐야 한대라고 했어요.

문제는 어떤 사업장에서든 사용자가 방법을 찾아야되는데 그런 노력을 대부분 하지 않더라 하는 부분이 안타까웠어요.

이혜진 >>

직업이 학원 강사이고 내 아이를 돌보는 상황에서 양쪽 입장을 다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 토론수업을 하는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3 수능과외를 하고 있고요. 가장 면역력이 약하고 예민한 아이들을 만나다보니 스스로 몸을 많이 사리게 되더라고요. 저 스스로 매우 조심하고 있음에도 부모님들께서는 더 많이 염려스러우시겠죠. 저도 그러니까요.

그러다보니 아이들이 줄고 수업 받는 아이들 숫자로 제 실제 수입이 잡히는데 코로나 이후 거의 10분의 1 정도 수입이 감소했어요. 생활을 어떻게 유지해나가야 하나 몇 개월 동안 정말 막막했어요.

또 비정규직이다 보니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있는데 그런 국가 정책의 혜택 받지 못했어요. 게다가 저도 걱정이 돼서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보니 하루 거의 22시간을 아이랑 있어요. 이런 표현이 좀 웃기지만 ‘아 이러다 내가 미치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이와 집안에만 있다 보니 일어나면 아이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아이 간식을 챙기고 놀아주다보면 또 밥 달라고 하고. 너무 지친다 하면 가끔 한 번씩 유치원에 보냈는데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피폐한 상황이에요.

김태희 >>

개인적으로는 모든 행사나 회의들이 취소되다보니 공식 일정들이 없어지며 시의원들도 갈 곳이 없고, 환영받지 못하고, 직업특성상 홍보 활동을 많이 해야되는데 참 어렵고 부담이 되요.

작년 연말부터 국회의원 선거가 한참 시작될 때 점차 코로나 상황이 커졌어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뭉치면 안 되고, 정치인들이 진행하는 선거는 뭉쳐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초반에 이렇게 길게 갈지 몰랐는데 아침마다 뉴스 속에서 확진자가 늘어가는 모습을 목격

하며 생존의 문제임을 인식했습니다. 아 건강한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구나, 안산에 확진자가 없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구나 했어요.

그 과정에서 선거라는 것을 했어요. 그 속에서 마스크 대란에 직면했어요. 마스크가 없어서 약국 앞에 줄 서던 모습 그런 진풍경을 봤죠. 다음은 방역문제였습니다. 거리 방역에 더 신경 써야 하나, 다중시설이나 유치원 등 아이들이 있는 곳에 더 방역을 해야 하나 등 곳곳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선거운동 기간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는 없으니 우선순위를 코로나 관련 피해를 입은 단체나 개인 등 당사자를 만나자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오셨던 분들이 소상공인, 어린이집, 세탁업, 농업인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나마 의료와 방역 문제는 점차 안정되서 다행이었지만 더 우려되는 것은 현재 민생경제의 침체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사태보다 심각하다는 얘기도 있죠. 실업급여 신청자가 최고치에 있다고 하구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 경기도에서 시에서 보편적 복지로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이 실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코로나는 계속 될 것이기에 실제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될 것인가 하는 현장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면 시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문제 인식이 있었고,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현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사회자 >>

현재 펼쳐지고 있는 지원 정책들이 어떻게 와 닿는지요?

원미 >>

예술 분야가 일반적으로 취·창업이나 노동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좀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술인들이 실제 노동을 하고 있고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대부분 1인 프리랜서인거죠. 그러다보니 예를 들어 창업 관련해 행정에서 서류를 내라고 하는데 예술인들의 경우 그 요구하는 기준이나 사례에 (걸)맞지 않는 틀이 많아요.

일을 분명 하고 있지만 행정적인 근거가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거나 기존 틀에 따라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실제 지원받는 것에 한정적이예요. 예술인들에 대해 지원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예술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인 공연, 전시 등 일부분에 몰려있어요. 실제 예술인들은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증빙하기 어려워서 지원정책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한 점이 분명 있더라구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도 많죠. 예술인의 일에 대해 증빙하는 것이 행정이라는 틀에 갇히기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서류의 틀에 억지로 맞춰야 하는 상황이에요. 행정에서도 그 폭을 조

금 넓히고 받아들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강순애 >>

저희는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일을 하다 다치거나 고객이 내일부터 오지 말라 하면 갑자기 실업자가 되잖아요. 우리도 법의 테두리 속 보호받는 직업인이고 싶은데 현재 그렇지 못하거든요. 정부에서 코로나 이후 이런저런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나마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울타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산재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가정관리사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사비로 치료 받아야 되고 아파서 일 못 나가면 그것이 바로 수입 감소와 일자리 상실로 이어져요.

보이지 않는 그림자 노동 이렇게 가사노동을 표현하기도 하고 여자들이 하던 일이니까 그냥 예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치부하는 상황이에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저희도 사람이고 싶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직업인이 되고 싶어요.

가사서비스 하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간혹 이 일하는 것을 숨기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일이 나쁜 일도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내가 그만큼 수고를 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

되기도 해요. 가끔 ‘관리사님 덕분에 일주일이 행복합니다.’ 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희열을 느끼기도 해요.

이혜진 >>

코로나를 겪으면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면 참 힘들어지구나 느꼈어요. 돌봄 휴가 제도에 혜택을 받으려 해도 1인 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어려웠어요.

그리고 학원에서는 원장님께 임대료를 유지해야 되서 학원이 너무 어려워지니 제 수업의 절반을 줄이겠다고 먼저 말했어요. 원장님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코로나 이후 착한임대료 정책이 생겼지만 크게 와 닿지 못한다고 해요. 건물주 입장에서도 임대료를 인하하고자 해도 자신도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매입한 입장이라 실질적인 혜택이 안 되는 상황이라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또 제가 이번에 겪은 일인데 유치원마다 돌봄 비용이 천차만별인거예요. 어떤 유치원은 원장 재량으로 무료였거든요. 저는 거의 다 냈기 때문에 너무 부러웠어요. 5월에 정책적으로 전액 지원이 된 것인데 그 전에는 원장들의 재량 상 서로 달랐던 거죠. 제 생각에는 정책적으로 서로 통일적으로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일 겪으면서 하던 일을 바꿔야 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18년 정도 지속적으로 해왔던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결단을 해야 하는 고민까지 한거죠.

미나 >>

4년 8개월 인천에서 살다가 사장에게 해고당해 안산으로 오게 되면서 운이 좋아 안산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어요.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인천에 그대로 있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지원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노동자들의 건강보험이 비싸요. 직장보험 가입을 안 해주다보니 13만 원씩 지역 건강보험금을 내는데 너무 힘들어요. 오늘 신청했는데 곧 출국해야 할 수도 있어 그 카드를 다른 동료에게 줘야할지 고민 중이에요.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에 뭔가 얘기한다면 코로나 시대이건 지나가건간에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거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말 할 기회가 없었지만 말씀 드리자면 외국인노동자들은 너무 외로워요.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별로 없기에 타국에서 외롭고 많은 것을 혼자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행도 힘들고 사업장에 삶의 대부분을 묶어 있어요. 이런 낯선 땅에서 따가운 시선을 느낄 때 많이 힘들어요.

박희정 >>

4월 초 긴급 설문을 진행했어요. 341명이 참여했는데 돌봄, 어린이집, 방과 후 교사, 프리랜서, 청년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이 44%, 정규직이 56% 설문에 응해주셨고 연령대는 고르게 분포됐어요.

코로나 이후 무급 휴업 관련해서 정규직은 21.4% 시행한 반면 파견노동은 100%였고, 특수고용 69.6%, 단시간노동 62.5% 계약직 35.5%였습니다. 정규직과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죠.

반대로 유급 휴업의 경우 정규직은 47.1% 시행한 반면 계약직 29%, 단시간 4.2%였어요. 조금 더 분석해보면 유급으로 휴일을 준다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연차휴가를 강요하거나 근무시간 줄여서 노동시간 자체를 단축하는 경우가 많아요. 프리랜서 등은 일거리가 아예 없어지는 심각한 상황이구요.

코로나 이후 실질적인 임금 감소액에 대한 답변을 보면 학습지방과 후강사 등 95만원 - 프리랜서(특수고용) 85만원 - 돌봄 직종 61만원 - 서비스 판매직 53만원 - 사무직 52만원 - 생산직 51만원 - 대리 등 20만원 순으로 줄었다고 하네요. 이는 어떤 직업과 직종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내 가족이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면 코로나 재난이 가정의 실질 소득감소로 직격탄을 날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대책을 이야기 해보면 시흥시에서 특수고용직 지원책으로 월 50만원씩 두 달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는데 단시간에 무려 470건이나 접수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드러나는 문제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다행히 문제제기를 해서 2차 접수에서는 완화된 상황이라고 하네요.

심각한 부분은 고용보험 냈지만 또 다른 사각지대에요. 계약직 노동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탄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180일 이내에 다시 일 자리를 잃으면 요건이 안 되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회자 >>

코로나 19로 이후의 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내가 법이나 지원정책을 만들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요?

강순애 >>

만약 내가 법을 하나 만들 수 있다면 직업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고용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지금처럼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실업자가 됐을 때 실업급여를 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는 정책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요.

원미 >>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데(웃음), 재난 지원금을 사용 목적에 맞게 비율을 지정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지출에 있어 문화예술 쪽이 끌등이에요. 문화예술로 먼저 소비하지는 않잖아요. 단순히 생각해본 것인데 그렇게 개선해보면 어떨까 해요.

이혜진 >>

가사노동과 정신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엄마들에게 가사서비스 바우처 등을 지원해주면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정말 피폐해졌을 때 엄마들이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미나 >>

외국인으로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조건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니 차별하지 않고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외국인 노동자로서 열심히 노동한 만큼, 이 사회에 기여한 만큼 정당한 대우와 가치를 지켜줬으면 해요.

이슬기 >>

20대 여성 노동자들은 요식업, 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업에 많이 취업해 있다 보니 코로나 사태에 특히 일자리를 많이 잃고 또 다시 불안정 노동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55만 개의 청년일 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우려되는 것이 또 경제위주의 정상화만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재난의 영향들이 이렇게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왜 우리 사회는 또 다시 허점투성이인 자본주의 논리로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린뉴딜이든 뭐든 추진하는 새로운 대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 노동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용적인 사회,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박희정 >>

시흥시 경우 코로나 지원을 위해 1,100억 원 가량 추경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시민들에 제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잘 몰라서 지원에 대한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하나 제안하자면 재난문자 오듯 지원에 대한 안내 문자도 시민 전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지 생각해봤어요.

시흥시에서 추진한 주요 일자리 지원책 중 하나 소개하자면 ‘일자리 은행제’라는 것이 있어요. 실직자와 소상공인과 사업체를 구인구직 매칭해주는 서비스인데요. 10인 미만 업체가 신청하면 예를 들어 하루 6시간 노동자를 고용하면 4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4대 보험 사업장 부담금을 지원해줍니다. 한 업체 당 3명 씩 3개월을 지원해주니 꽤 인기 있는 지원책이에요.

너무 감사한 제도이지만 이 또한 한시적인 지원책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코로나가 장기화된다면 또 다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자체에서 전주가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을 가장 먼저 했어요. 노사민정이 다 같이 추진한 것인데 지역은행을 통해 기금을 마련해서 고용

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지원해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의미는 고용을 유지하자, 해고를 하지 말자라는 상징성이고, 두 번째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는 거예요.

시흥에서도 노동계가 먼저 제안했고 지난 5월 19일 선언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97%나 되는 무노조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우선적이다, 코로나 사태를 핑계 삼아 탈법적인 위법행위들을 벌이는 기업에 많은데 민주적인 소통구조를 만들어 노동자들과 대화를 통해 위기를 넘겨야 한다 이렇게 노동자의 입장을 정리해 선언을 추진했어요. 그리고 ‘해고 없는’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날카로운 반응을 보인 기업들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설득이 진행되면서 결국 245개 기업체가 동참해 선언했죠.

김태희 >>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초창기에는 지금 상황이 과연 재난이냐, 지원의 대상이 어디까지냐. 어떤 근거로 지원할 것인가 등 논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지로 먼저 추진했고 그에 발맞춰 의회에서도 재난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안산에서도 추진되기 위해 일했어요.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20만 명 정도 되는데 최근 그나마 5만 명 정도 문화예술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그런데

앞서 언급된 것처럼 이를 어떻게 증빙할 것인가 논의가 많아요. 통장 거래의 변동사항까지도 고려되는 등 지금까지 없던 사례들을 반영해 나름의 기준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코로나 이후 사회안전망을 논의하는 것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사안이 중요할 것이라고 봐요. 시의회에서 저는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가 경기도와 일부 시에는 있는데 안산시에는 없어 그 조례를 추진 중에 있어요.

사회자 >>

이 자리를 준비하며 했던 고민들보다 오늘 패널들의 이야기들이 직접 들어보니 훨씬 더 많은 생각과 상상이 생기는데요. 패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대이든 아니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우리 서로의 이야기들이 전달되고 잘 모여서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는 과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록]

안산시민사회연대

코로나19 안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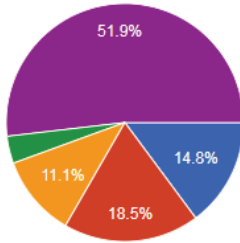
코로나19속 안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본 설문은 10/6(화) 오후3시, 코로나토크쇼-활동가편에서 공유될 예정입니다.



[기간] 09/16-29

[응답] 활동가 2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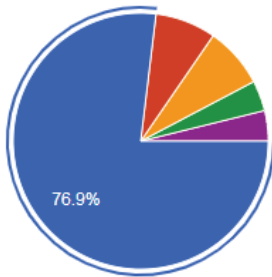
활동연차



- 1년차 미만
- 1년차 이상-3년차 미만
- 3년차 이상-5년차 미만
- 5년차 이상-10년차 미만
- 10년차 이상

10년차 이상(14명)
 5년차 이상 10년차 미만(1명)
 3년차 이상 5년차 미만(3명)
 1년차 이상 3년차 미만(5명)
 1년차 미만(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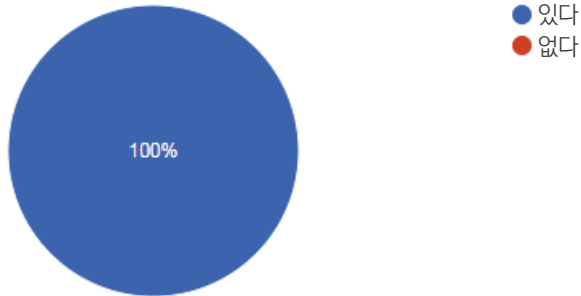
근무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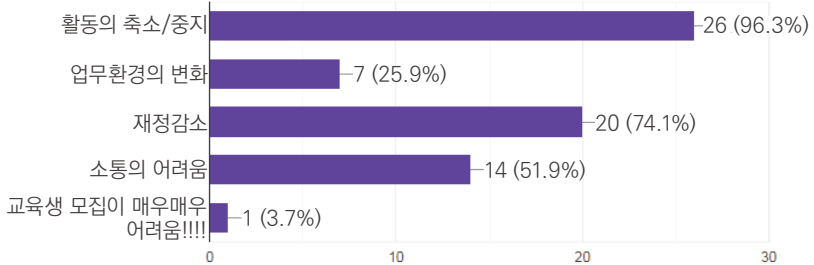
- 비영리민간단체/법인
- 중간지원조직
- 개인활동가
- 비영리기관
- 문화예술활동가(극단)

비영리민간단체/법인(20명)
 중간지원조직(2명)
 비영리기관/개인활동가/ 문화예술활동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속단체/개인에게 영향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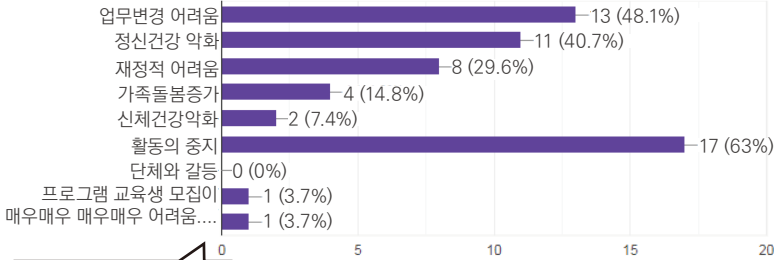


[소속단체/활동]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속단체 혹은 활동에 어떠한 영향이 있으십니까? (복수응답가능)



- 1위-활동의 축소/중지(26명)
- 2위-재정감소(20명)
- 3위-소통의 어려움(1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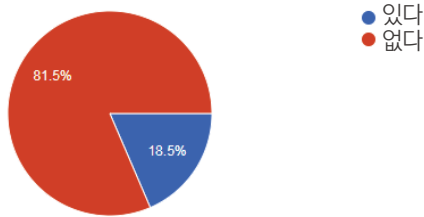
[활동가 개인]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가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으십니까? (복수응답가능)



불안감증폭
: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미래가 걱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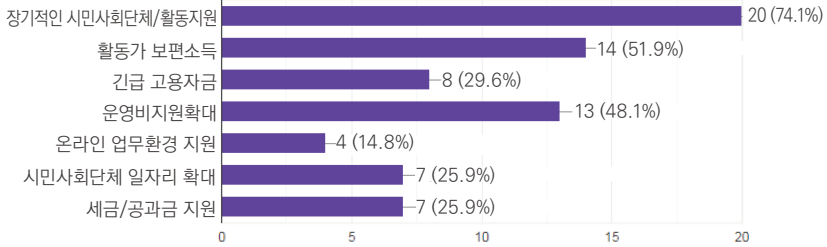
- 1위-활동의 중지(17명)
- 2위-업무변경의 어려움(13명)
- 3위-정신건강악화(11명)

코로나19 대책으로 나온 정부, 지자체의 지원 중 소속단체 혹은 활동 차원에서 지원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이 있나요? (긴급재난지원금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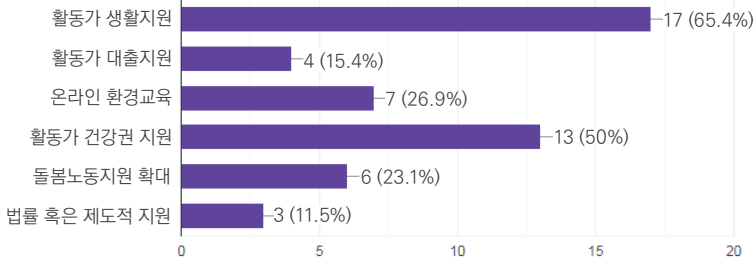
사회적기업 대상 코로나19 긴급지원
고용노동부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3명)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한국뮤지컬협회 인력지원사업 --
단원들에게 해당. / 본인(대표) : 소상공인 고용보험 30% 지원.

[소속단체/활동분야]
**코로나19의 대책으로 정부 및 지자체가 소속단체 혹은
 활동에 지원해줬으면 하는 게 있다면? (복수응답가능)**



- 1위-장기적인 시민사회단체/활동지원(20명)
 2위-활동가보편소득(14명)
 3위-운영비지원확대(13명)

**[활동가 개인분야] 코로나19의 대책으로 활동가 개인에
 게 지원해줬으면 하는 게 있다면? (복수응답가능)**



- 1위-활동가 생활지원(17명)
 2위-활동가 건강권 지원(13명)
 3위-온라인환경교육(7명)

[기타]
코로나19를 살아가는 활동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다면?

- 비대면으로 소통과 공감의 어느 정도 가능한가?
- 요즘 일은 어쩐지, 먹고사는 건 어쩐지, 집에서 뭐하는지...고용유지에 문제는 없는지
- 쫓지 말고 정부의 말을 다양하게 해석하자.
- 코로나로 인한 활동 환경 변화.. 특히 온라인 중심.. 대면 축소 등에 대한 대안.. 대비책..
- 기운내요!
- 팬데믹이 일상인 사회 속,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은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방어적인 일상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닌가?